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창단 50주년 기념
SINCE 1972

Carl Orff

Carmina
Burana

COVER STORY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ART COLUMN

공간과 공감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시민마당 문화플랫폼

부산시립합창단

June 2022
Vol.366

6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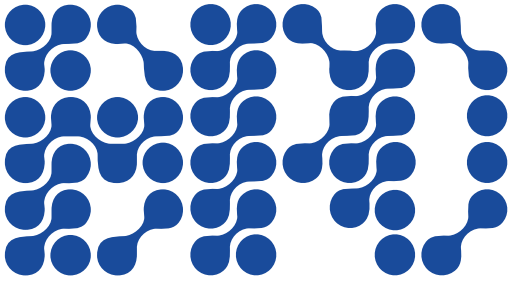


2022년 교향악단 창단 60주년, 합창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예술단이 희망과 감동의 무대로
예술의 숨결을 전합니다**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하반기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양인모

BPO
SYMPHONIC
SEASON
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Inmo Yang, Artist-in-Residence 2022



Late Summer - The Maurice Ravel Cycle VIII
제590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9월 2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소프라노 이명주

Program

라벨 /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바버 / 녹스빌: 1915년의 여름 (한국 초연)
라벨 / 바다 위의 작은 배 (한국 초연)
드뷔시 / 바다

Two Masterpieces of Prokofiev
제591회 정점

9월 23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문지영

Program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5번



Ravel! - The Maurice Ravel Cycle IX
제592회 스위스 시계장인

10월 7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신창용



Program

슈만 / 피아노 협주곡
라벨 / 스페인 랩소디
라벨 / 볼레로

BPO's 60th Birthday
제593회 회갑(回甲)

11월 2일 수요일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Program

스트라빈스키 / 축하 전주곡
진은숙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슈트라우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BPO plays Tchaikovsky
제594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12월 2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윤한결
바이올린 임재홍

Program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With You
제595회 동반자

12월 23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최수열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Program

브리튼 / 세레나데
엘가 / 수수께끼 변주곡





PRAY FOR PEACE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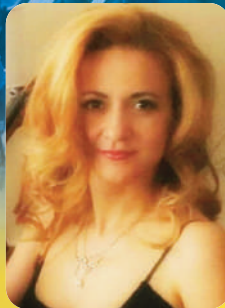
부산여성실내악단 초청 평화기원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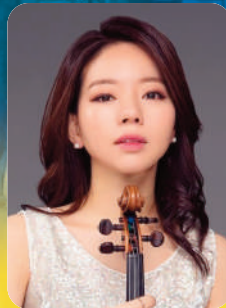
지휘자
김영근



지휘자
김현국



첼로
톨마초바 옥사나



바이올린
김소정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김준연

2022. 6. 29(수) 오후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주한우크라이나문화원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www.bscc.or.kr



제33회 글로빌 전국음악콩쿨

무대경연 또는 온라인경연 (택일)

부문	대회일	접수마감
성악 중창 관악 현악 실내악	2022. 7. 1 (금)	2022. 6. 28 (화)
피아노 작곡 국악	2022. 7. 2 (토)	2022. 6. 28 (화)

장 소 글로빌아트홀

부 문 피아노 / 관악 / 현악 / 실내악 / 성악 / 중창 / 작곡 / 국악

대 상 유 / 초 / 중 / 고 / 대 / 일반 / 일반비전공

접 수 처 콘테스트 www.contest.co.kr

참 가 비 유·초등부 8만원 / 중·고·대학·일반부 10만원 / 실내악·중창 1인당 5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빌아트홀 (참가자이름으로 입금, 참가비 환불불가)

과 제 곡 전 부문 자유곡 1곡(곡 추가 가능, 곡 추가 시 한국당 5만원)

작곡과제 중·고등부 : 피아노곡 작곡 및 피아노실기(자유곡 1곡) / 대학일반부 : 피아노트리오 작곡 및 피아노실기(자유곡 1곡) 동기 당일제시

온라인경연 영상제출 방법 및 규정

이메일 제출 : glovilarthall@hanmail.net 이메일제목 기재사항 : 참가자명, 악기명, 학년 예) 홍길동, 피아노, 초3

3개월이내 촬영한 영상, 본인확인 가능하게 얼굴 손 발이 보이도록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고 편집불가

촬영시간 : 유초등부 1분~3분, 중고대일반 1분~5분, 접수마감일 내 제출해야 함

시상 및 장학금 중 고 대학 일반부

전체대상 - 부산광역시장상 100만원 / 특별상 - 동래구청장상 50만원 / Excellent Composer상 - 신영순상 3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 - 피아노 20만원 / 성악 20만원 / 현악 20만원 / 관악 20만원 / 실내악 20만원 / 중창 20만원 / 작곡 20만원 / 국악 20만원

부문별 학년별 1위 2위 3위 장려 : 상장 수여

시상 및 장학금 유초등부

영아티스트 그랑프리상 30만원 / 저학년 부문별 금상 - 피아노 10만원 / 성악 10만원 / 관현악 10만원

고학년 부문별 금상 - 피아노 10만원 / 성악 10만원 / 관현악 10만원 / 저학년 부문별 은상 - 피아노 5만원 / 성악 5만원 / 관현악 5만원

고학년 부문별 은상 - 피아노 5만원 / 성악 5만원 / 관현악 5만원 / 부문별 학년별 1위 2위 3위 장려 : 상장 수여

※ 심사기준 : 부문별 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유초등부 별도 시상)

※ 대회 상세일정표는 각 부문 접수마감 후 글로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arthall.modoo.at)에 공지

※ 아트홀 리모델링 관계로
수상자음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Glovil Art Hall (우)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길 162(온천동, 글로빌아트홀)

☎ 051-505-5995 / Email : glovilarthall@hanmail.net / Website : www.glovilarthall.modoo.at



“그날 불행이 다가왔다...”

최현정 박센 이 설

작·연출 김정환

2022. 6.10.(금) - 11.(토) 금 7:30pm 토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티켓 R 3만원 S 2만원 |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ARS 1번)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 제작 빅픽처스테이지

CONTENTS

06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June 2022 Vol.366

2022년 6월호 통권 36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박철호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lumn

공간(空間)과 공감(共感)

10 Cover Story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⑪

시대를 앞선 예술만이 가치를 가질까?

18 세계오페라축제 ⑤

채석장에서 만나는 한여름 오페라 축제
채석장 오페라 축제

22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시민마당 문화플랫폼

26 Preview

30 Issue

2022년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
2022년 제19회부산국제연극제

36 Review

43 Program Guide

58 New Book

59 BSCC News

SUN	MON	TUE	WED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13일(금)-6월 4일(토) 토요일 · 공휴일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입장료 : 전석 1만원(전연령 관람가)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5월 31일(화)-6월 3일(금) (사)국민예술협회 부산지회 245-2521 2022 부산회화제 6월 6일(월)-6월 11일(토) 유선경 010-2870-0505 2022 제 33차 아트월드21 선정 작가 초대전 6월 15일(수)-6월 18일(토) (사)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	한국추사서화예술전국공모대전 6월 21일(화)-6월 22일(수) (사)한국추사서예협회 632-7077 제42회 전국서도민전 6월 24일(금)-6월 29일(수)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	2022 부산음악콩쿠르 1 대 중 챔 부산MBC(7)
5 바리톤 유용준 리사이틀_세 번째 이야기 'Belcanto' 16:00 중 무료/유용준(010-8694-2087) 소프라노 박소영 귀국독창회 17:00 챔 초대/박소영(010-5855-3429)	6	7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19:30 중 전석 2만원/윤지영(010-5165-3744)	8 2022 부산음악콩쿠르 1 대 중 챔 부산MBC(7)
12 김희정&서혜리 듀오 리사이틀 17:00 중 초대/서혜리(010-3596-1964)	13	14	15 부산시립극단관현악 '부산시립극단관현악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대 1만원-5천원/(재)부
19 제31회 부산무용제 19:30 대 부산무용협회(632-5116)	20	21 테마 오페라 '베르디의 4여인'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1600-1803) 제28회 퍼포먼스 뮤지콘 작곡발표회 '가상 풍경 Imaginary Landscape' 19:30 중 2만원-1만원/퍼포먼스 뮤지콘(010-9902-3549) 해설이 있는 오페라여행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챔 전석 1만원/SJ엔터테인먼트(010-9582-3899)	22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중 (사)아지무스오페라
26 제5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17:00 중 전석 1만원/박정희(010-9841-1006)	27	28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010-5141-0776) 고신대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 19:30 중 초대/아트락(010-5468-4658) 브리즈온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19:00 챔 브리즈온 앙상블(761-4391)	29 (재)부산문화회관 가 초청 평화기원 음악회 중 2만원-1만원/(재)부 조무중 바이올린 리사이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3	4
0:00 60-1121)	2022 부산음악콩쿠르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2022 부산음악콩쿠르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4회 음악정기연주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514-1232)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중 초대/BTN방송여성합창단(010-6450-5942)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베토벤과 브람스' 17:00 챔 초대/김연정(010-6844-2533)
8	9	10	11
0:00 60-1121)	2022 부산음악콩쿠르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이은경 작곡 발표회 '와유의 바람' 19:30 중 전석 1만원/이은경(010-4198-0236) 소프라노 김소라 귀국 독창회 19:30 챔 전석 2만원/핀덴(010-8384-5451)	2022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3 14:00, 18:00 대 취하늘이엔티(070-4282-2867) 레이비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15:00 중 전석 1만원/레이비앙상블(010-9841-1006)
5	16	17	18
단 특별연주회 단 & 단 합동교류음악회' 19:30 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엄남이의 12번째 이야기 '소프라노 엄남이, 이현서와 함께하는 2인 음악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知絃 season1 19:30 챔 초대/김지현(010-3006-8186)	제31회 부산무용제 19:30 대 부산무용협회(632-5116)
2	23	24	25
19:30 단(010-8520-4649)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및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연주회_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19:30 대 3만원 2만원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19:30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권준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 프로젝트 시리즈' 19:30 챔 2만원 1만원/권준(010-4658-7963)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및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연주회_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19:30 대 3만원 2만원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19:30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2022 대한민국 희망콘서트 in 부산-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함께가자' 17:00 대 10만원 7만원/필컴퍼니(010-2510-3504)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16:00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The Solist' 16:00, 19:30 챔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30		
확공연 '부산여성실내악단 19:30 산문화회관(607-6000) 들 '음악에 길을 묻다' 코레아(442-1941)	제7회 드 콤마 정기연주회 '우리 친구들 클래식은 처음이지' 19:30 중 전석 1만원/드 콤마(010-8540-8636) 소프라노 윤경연 독창회 19:30 챔 초대/예술기획점마(010-3187-7978)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공연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제13회 부산 가톨릭 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6월 13일(월)-6월 18일(토) 제1전시실 회장 정명환(돈보스코) 010-8542-3559 이혜란 석사학위청구전 '들여다보기' 6월 14일(화)-6월 18일(토) 제2전시실 이혜란 010-9616-2757	제9회 전국 한필서예작가전 6월 20일(월)-6월 26일(일) 제1, 2전시실 신미경 010-7756-5636	
5 2022 MR&MS Fitness 부산선발대회 13:00 대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010-8010-3248)	6	7	8
12	13	제4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나눔송 경연대회 15:00 소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의회(010-3074-3054)	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소 부산광역시서부노인 (010-6608-5966)
19 레이어스 클래식 라이브콘서트 2022 19:00 대 7만원-5만원-3만원 어썸클래식스튜디오(02-6951-4130) 어린이뮤지컬 '렛잇고 2' 11:00, 13:00, 15:00 소 전석 4만4천원/극단예일(02-555-0822~3)	20	21	22
26	27	28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소 무료(지정좌석제)/(재)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3	4
8	9	10	11
15	16	17	18
22	23	24	25
29	3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공간(空間)과 공감(共感)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22년 5월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공유하던 공간이 일순간 공포의 대상이 된 듯하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까지 참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필자가 굳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팬데믹(Pandemic)이라는 글에서 출발하고픈 이유이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사람’을 뜻하는 ‘demic’의 합성어로, 모든 사람에게 감염병이 확산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존재하는 엔데믹(endemic)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모두에서 일부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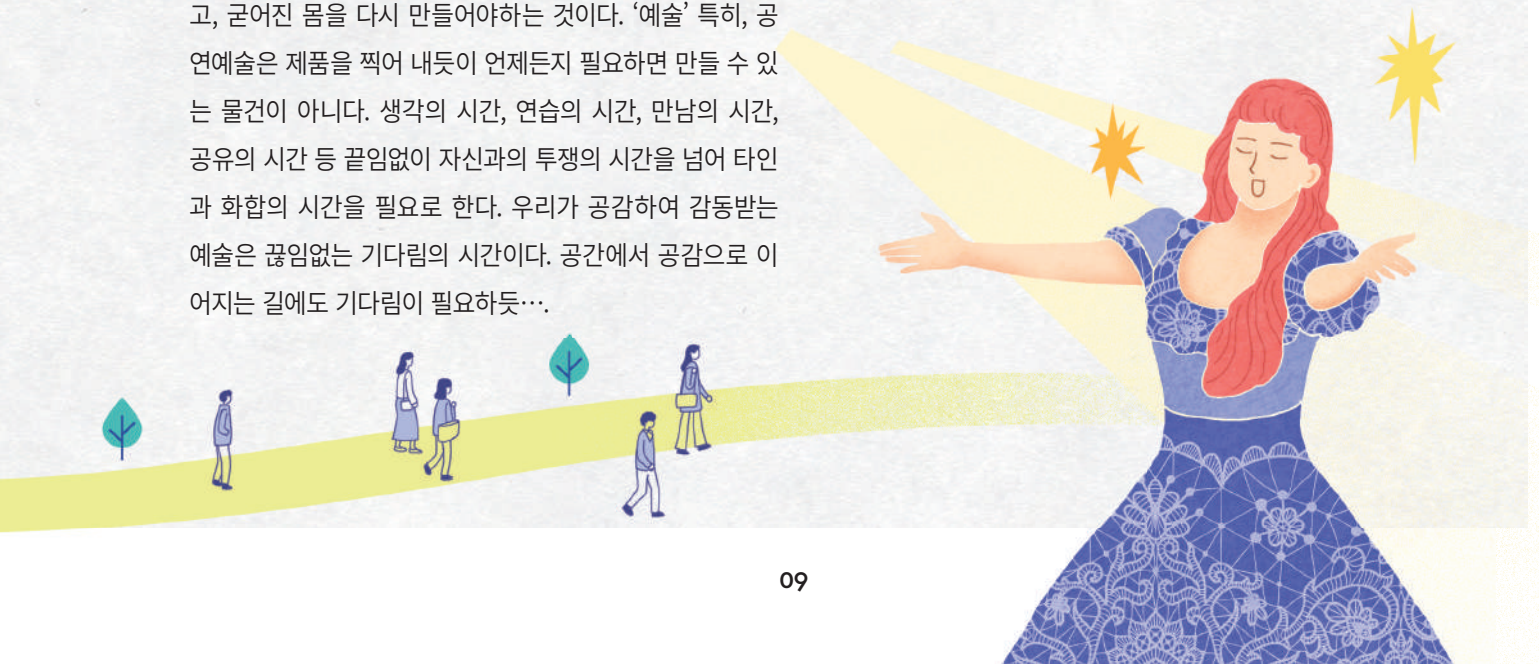


부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1973년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이 있다. 부산시민회관은 부산 공연예술의 상징으로 힘들고 어렵던 시절 부산시민에게 공연예술로 위로를 전해주던 곳이다. 이후 1988년 부산문화회관의 대극장이 준공되고 1993년 전관이 개관되면서 범일동에서 대연동으로 공연예술의 축이 옮겨졌으며, 2017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으로 법인화되면서 (재)부산문화회관에서 두 공연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부산 문화예술 공연장의 또 다른 축으로는 해운대 센텀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이 2011년 탄생하였다.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영화관계자 및 애호가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와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다양한 공간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술문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것은 다양한 공연문화가 열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공간(空間)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전에 없던 긴 시간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공연 전문가들이 공연장을 떠났다. 연주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연주자의 길만 걸었기에 연주를 할 수 없는 환경을 견디질 못한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떠났다. 다시 공연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니 연주자들은 무대로 돌아와야 하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놓았던 악기를 새로이 연습하여야 하고, 굳어진 몸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 특히, 공연예술은 제품을 찍어 내듯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생각의 시간, 연습의 시간, 만남의 시간, 공유의 시간 등 끊임없이 자신과의 투쟁의 시간을 넘어 타인과 화합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공감하여 감동받는 예술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공간에서 공감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듯...

공감(共感)이라는 감동의 시간에는 공연장 본연의 일이 필수적이다. 부산시민회관은 탄생에서부터 종합예술 공연장이다. 굳이 세분화하자면 대형 클래식 공연장이다. 1970년대에는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극장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야 할 형편이었으니 말이다. 이때 지어진 부산시민회관은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최고의 선물이자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장소였다. 굳이 아시아 최고의 공연장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빛을 발하였다. 이후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영화의전당, 앞으로 지어질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들어선다. 이 공간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설정한 건립 목적에 최대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영화의전당이 영화로부터 공연예술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듯이, 부산오페라하우스 역시 오페라로부터 공연예술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하게 그 시금석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오페라가 종합예술인 이유는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이 공감과 공유를 통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완성도 높은 오페라는 화합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공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간(空間)에서 공감(共感)으로 가는 길은 나를 비우고 우리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및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6월 23일(목)-2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휘 이기선

연출 김지용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안무 박근태 무용 부산청년무용수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합창단 2022년 최고의 기대작!!!

1972년, 시립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부산시립합창단이 2022년, 창단 50주년을 맞는다.

창단 후 지금까지 185회의 정기연주회와 600여 회의 초청 및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많은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은 특히 1997년, 전국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공연을 가짐으로써 부산의 합창음악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2009년 1월에는 독일의 번스타인으로 불리는 유명 지휘자 유스투스 프란츠(Justus Frantz)가 이끄는 독일연방필하모니의 초청으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등 독일 4대도시 순회 신년음악회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합창무대를 선사하여 매 공연마다 2,000여명의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3개 국가의 National Day에 정식 초청받아 공연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러시아 유라시아 원정대 개폐막대회의 화합연주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 부산의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을 대표하여 하얼빈 개막공연에 참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윌리엄 월튼(William Walton)의 '벨사살의 향연(Belshazzar's Feast)'을 부산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차별화된 음악성을 선보인 바 있다.

초대 지휘자 임종길, 2대 지휘자 강기성, 3대 지휘자 이규택, 4대 지휘자 김광일, 5대 지휘자 유봉현, 6대 지휘자 이상열, 7대 지휘자 김강규, 8대 지휘자 오세종, 9대 지휘자 전상철에 이어 2019년 12월부터는 깊이 있는 음악,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

부산시립합창단



자로 알려진 한국 합창계의 거목 이기선 지휘자가 예술감독 및 제10대 수석지휘자를 맡아 부산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지휘자 이기선은 오랜 공부와 경험에서 축적된 작품에 대한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북유럽 합창음악처럼 윤택하고 깊이 있는 독특한 사운드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이 넘치는 지휘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지휘아카데미 대표교수로도 활동중이다.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칼 오르프 일생의 역작 ‘카르미나 부라나’

부산시립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을 맞아 첫 번째 기념공연으로 독일의 작곡가 칼 오르프가 일생의 역작으로 남긴 ‘카르미나 부라나’를 무대에 올린다.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대작으로, 그동안 영화나 광고음악으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작품이다.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칼 오르프는 1934년, 요한 안드레아스 슈멜러가 편집한 1847년 판 <카르미나 부라나>를 입수했다. 여기서 카르미나(Carmina)는 라틴어로 ‘노래’를 뜻하는 ‘carmen’의 복수형이고, 부라나(Burana)는 ‘보이에른(Beuern)’의 라틴어 이름이다. 따라서 카르미나 부라나는 ‘보이에른의 시가집(Song of Beuern)’이라는 뜻으로, 이 시가집의 명칭은 1803년 독일 뮌헨 남쪽으로 수킬로 떨어진 바이에른 지방의 베네딕트보이에른(Benediktbeuern) 수도원에서 발견된 데서 유래하였다. 12~13세기경, 라틴어와 고대 독일어, 프랑스어로 쓰인 200여 편의 노래는 젊은이의 희망, 좌절, 사랑, 방황, 쾌락과 그 덧없음, 봄날의 예찬 등을 가사로 하고 있으며, 오르프는 이 중에서 24편의 가사를 골라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하였다.



무용연출 박근태
더파크댄스 예술감독

알아듣기 힘든 라틴어와 철학적인 내용의 가사임에도, 오르프의 독특한 선율은 신비로우면서도 매혹적인 리듬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오르프는 ‘언어 자체가 가진 음악’, 가사의 운율을 직접적으로 표현



박동희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공기태
창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고집스러운 만큼 반복되는 선율 패턴을 통해 역동성과 운동감을 형성했다. 그 결과, 옛 시대의 음악과 현대적인 리듬 감각, 그리고 오르프만의 독창적인 음악언어가 결합됨으로써,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하고도 환상적인 음악이 탄생했다.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삶의 순환을 음악적 구조로 구현

‘카르미나 부라나’는 ‘도입부’, ‘새봄’, ‘선술집에서’, ‘사랑의 물’, ‘종결부’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며, 모두 25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르프는 필사본의 첫 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에서 음악적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운명의 바퀴 주변에는 ‘지배하리라’(Regnabo), ‘지배하네’(Regno), ‘지배했다네’(Regnavi), ‘왕국을 잃었네’(Sum sine regno)라는 네 개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처럼 끝없이 순환하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오르프는 기쁨이 비탄으로, 희망이 슬픔으로 바뀌게 되는 삶의 순환을 음악적 구조로 구현하였다. 슈멜러 판 <카르미나 부라나>에 첫 번째로 수록된 시 ‘오, 운명의 여신이어’(O Fortuna)는 이 삶의 순환을 모두 담고 있는데, 오르프는 이 시를 도입부와 종결 부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운명의 순환을 극명하게 드러내려 했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193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뒤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당시 독일을 장악하고 있던 나치 정권은 처음에는 가사의 에로틱한 표현 때문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이 작품의 공연을 허용했고, ‘카르미나 부라나’의 선풍적인 인기는 나치 정권 하에서도 오르프가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이 작품은 당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혔고, 이후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르프는 이 작품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2차 대전 중에 2부격에 해당되는 ‘카툴리 카르미나’(Catulli Carmina, 1943)를 작곡하였고, 종전 후에는 3부격에 해당되는 ‘아프로디테의 승리’(Trionfo Di Afrodite, 1953)를 작곡했다. 흔히 이 세 작품을 ‘카르미나 3부작’(Carmina Trilogy), 또는 ‘승리 3부작’이라고 하나 ‘카르미나 부라나’가 워낙 유명한 탓에 뒤의 두 작품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울경 3개 도시 시립합창단이 출연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청년무용수 더파크댄스가 출연한다. 특히 국내 첫 메가 시티가 될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음악회를 겸하면서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이 함께하여 무대를 더욱 빛낸다. 지휘는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 연출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 안무연출은 더파크댄스 예술감독이자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박근태 교수가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무용가들로 구성된 더파크댄스 단원 2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지역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창단 50주년을 기념한다.

지난 1993년 비상임단체로 출발한 후 1998년 시립합창단으로 거듭난 울산시립합창단은 연간 4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다양한 테마의 기획공연, 활발한 대외공연과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관객 위주의 맞춤형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름답고 푸른 생태도시 울산을 소재로 하는 주옥 같은 시를 합창곡으로 만들어 보급하면서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공공예술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깊이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박동희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도시가 통합창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2012년 3개 도시의 시립합창단이 통합되면서 창단한 창원시립합창단은 단일 합창단으로서는 90여 명의 최대 규모로 웅장한 소리를 자랑하고 있다. 창원시립합창단은 예술을 통한 화합과 조화의 의미로,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여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클래식 합창은 물론 꾸준한 지역문화 예술콘텐츠 개발 및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를 담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현재는 아름다운 사운드와 멋진 하모니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하는 공기태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역대 지휘자와 함께하는 하반기 기념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무대는 합창단 창단일인 10월 28일 열리는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로, 이날 무대에서는 현재 예술감독이자 제10대 수석지휘자인 이기선 지휘자와 함께 제4대 수석지휘자 김광일, 제7대 수석지휘자 김강규,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등 역대 지휘자 3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단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마지막 기념 무대는 12월 8일 열리는 제188회 정기연주회로, 지난해 '헨델 메시아'에 이어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하이든 천지창조'로 송년무대를 마련한다.

시대를 앞선 예술만이 가치를 가질까?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알렉산드로 카바넬, <비너스의 탄생>, 1863년,
캔버스에 유채, 130×225cm,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교육이나 산업 분야 등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미술계에서 일하는 만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창의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떠올리고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새롭거나 혁신적인 예술이 가치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라파엘로의 <성모자>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사실적인 묘사 방식에 있어서 뛰어났고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대를 앞선 예술이 가치를 갖게 된 것일까. 그 시작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당대에 이해를 받지 못한 예술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은 예술의 극명한 대조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상주의(Impressionism)’가 출현한 19세기 중반이었다.





2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1863년, 캔버스에 유채, 208×265.5cm,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3 마네, <올랭피아>, 1863년, 캔버스에 유채, 130.5×190cm,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올랭피아와 비너스의 대결

인상주의의 대표작가로는 마네(Edouard Manet, 1832-1883)와 모네(Claude Monet, 1840-1926)를 꼽을 수 있다. 모네는 태양빛의 색을 담은 야외풍경을 주로 그렸다면, 마네는 당대의 생활에 집중한 인물의 모습을 주로 그렸다. 그리고 마네는 인상주의자로 불리게 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선배격이었던 작가로 시대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아직 마네가 살던 시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그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1863년이였다.

1863년에 여느 해처럼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온 그림들을 아카데미 회원들이 심사했다. 그리고 열린 살롱전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1등을 한 알렉산드로 카바넬(Alexandre Cabanel, 1823-1889)의 작품이었다. 제목은 <비너스의 탄생>[도판 1]으로, 바다 위에 이제 막 태어난 비너스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아름다운 비너스 위에 아기 푸토들이 날며 축하를 해주고 있다. 하늘과 바다의 환상적인 색채와 아름다운 비너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살롱전에서 카바

넬의 작품이 주목받았다면, 바로 옆의 낙선전(the Salon des Refusés)에서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도판 2]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처음 열린 낙선전은 당시 살롱전에 프랑스 아카데미의 취향에만 맞는 그림만을 뽑고 선출방식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정부가 민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낙선전을 열게 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롱전과 낙선전에 각기 걸린 작품들을 대중이 직접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나폴레옹 3세의 예상대로 사람들은 낙선전의 작품을 보고 비아냥댔고, 가장 큰 비난을 받은 것이 바로 마네의 작품이었다. 관람객들은 <풀밭 위의 점심식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그림을 뺄 것을 요구했다.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관계자들은 그림을 떼어서 천장 바로 아래로 옮겨서 걸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들고 있는 우산으로 그림을 훼손하려 했다. 당시 비평가들 역시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이 생기가 없는 그저 하얀 물감을 발라 두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나 '외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의아하다. 살롱전에



4 드가, <발레>, 1876년 경, 종이 위에 파스텔, 58.4X42cm, 프랑스 파리 오르세미술관 소장

5 윌리엄 부게로, <비너스의 탄생>, 1879년, 캔버스에 유채, 300×218cm,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6 장 레옹 제롬,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1890년, 캔버스에 유채, 89×69cm,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서 상을 받은 카바넬이 그린 비너스도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인데, 그것은 ‘예술’이고 마네가 그린 여인은 ‘외설’이라 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당시 두 그림을 예술과 외설로 나눈 기준은 여성이 아닌 바로 옆의 남성들에게 있었다. 카바넬의 비너스는 신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마네가 그린 장면은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주말 피크닉 장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신의 여인 옆에 있는 남성들의 옷은 당시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이었고, 파리 사람들은 휴식을 위해 근처 숲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다. 이토록 일상적인 장면에서 여인이 옷을 벗고 뭐가 문제냐는 듯 관람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었다. 만약 바닷가에서 젊은 남녀가 놀고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 그중 한 명이 옷

을 벗고 있으면 우리 역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두 작가의 행보 또한 크게 차이났다. <비너스의 탄생>은 전시가 끝나고 바로 나폴레옹 3세의 컬렉션에 들어갔고 카바넬은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되었다. 이에 반해 마네는 악명을 얻었다. 이로써 당시의 판정은 카바넬의 승리이다. 하지만 현대에서 마네의 작품은 익숙하지만 카바넬은 그 이름부터가 생소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판단을 위해서 같은 해에 그려졌고 다음 해에는 살롱전에 걸리게 된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 ^[도판 3]와 카바넬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여성의 누드가 중심이 되는 구성이니 말이다.

낙선하지 않고 다음 해 살롱전에 걸리긴 했더라도, <올랭피아> 역시 ‘하얀 고릴라’ 같다는 평을 받았다. 올랭피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상체를 비스듬히 기대 자세로 누워있는 누드인데, 카바넬의 비너스

와 다르게 비판을 받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우선 두 작품 속 여인의 피부와 입체감 표현의 차이에 연유한다. 카바넬의 비너스는 마치 핑크빛이 살짝 도는 대리석같이 하얀 피부이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체의 굴곡이 잘 드러난 반면, 마네의 올랭피아는 그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흰색의 평면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당시 주류미술계에서는 마네의 사실적인 묘사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네는 조명을 일부러 조정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누드를 보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네는 일상에서 보이는 빛과 소재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야말로 화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또한 여성의 누드를 그릴 때에도 당시 파리의 창녀가 쓰던 이름이기도 한 ‘올랭피아’를 제목에 붙이고, 창녀들이 많이 하던 액세서리인 초크를 하게 했다. 또한 파리에서 흔했던 흑인 하녀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비너스와 푸토와는 다른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랭피아의 ‘시선’이 문제였다. 르네상스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진 누드화 속 여성들은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을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누드화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여인은 보는 이들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을 뿐더러 마음껏 자신을 감상하게 한다.

하지만 올랭피아는 상체를 살짝 세우고 화면 밖 관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올랭피아와 시선을 마주치게 되면, 오히려 관객이 놀라 눈을 피해야 할 것 같다. 마네가 이러한 점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올랭피아의 당당한 시선은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도 과거 누드화와 다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다. 하지만 마네는 오히려 상젤리제 뒷골목에서 만난 창부들의 당당함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 작품 역시 <풀밭 위의 점심식사>처럼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익숙한 장면이라는 것이 마네의 생각이었다.

당대에 성공한 화가 vs 시대를 앞선 화가

마네를 비롯하여 서양미술사의 현대적 전환기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인상주의자들[도판 4]이 활동한 그 시대에 파리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화가들은 카바넬을 비롯하여 윌리엄 부게로(Adolphe William Bouguereau, 1825-1905)[도판 5]나 제롬(Jean-Léon Gérôme, 1824-1904)[도판 6]과 같은 작가들이었다. 마치 대리석처럼 미끈한 여성의 신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이었다. 이에 반해 인상주의자들은 산업혁명,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국적인 문화들, 그리고 사진술의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이전에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한 만큼 당시 미술계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대립이 극명하게 보였던 1863년 살롱전과 낙선전 이후에 두 화가의 삶은 달랐다.

카바넬은 생전에 살롱전에서 입상하고 교수이자 사회적 인사로 성공한 삶을 누렸지만 지금은 잊혀졌다. 반면 마네는 카바넬처럼 성공하고자 인상주의 전시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며 꾸준히 살롱전에 그림을 냈지만, 결국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하지 못한 채 병으로 죽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대를 앞서나간 ‘창의적’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마네는 당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이러한 의도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앞으로 도래할 신세계를 위한 미술을 찾고 있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선구자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카바넬의 비너스와 마네의 올랭피아 중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답은 없다. 그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채석장에서 만나는 한여름 오페라 축제

채석장 오페라 축제

OPER IM STEINBRUCH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해외 주요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는 콘서트홀과 오페라극장은 6월 말이면 대부분 시즌이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7~8월 파리, 베를린, 밀라노와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찾더라도 바스티유 오페라(Opera Bastille), 베를린 필하모니아(Berlin Philharmonie), 라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과 같은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에서는 공연을 만날 수가 없다. 시즌이 시작되는 9월까지 이들 극장은 잠시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의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밤 오페라와 발레를 만날 수 있었던 빈 국립가극장(Wien Staatsoper)도 문을 닫고, 빈 심포니(Wiener Symphoniker)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가 상주해 있는 콘체르트하우스 빈(Konzerthaus Wien), 뮤직페라인(Musikverein)에서도 연주를 만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 기간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er Festspiele)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spiele)의 호스트 오케스트라로 활동한다. 그래서 한 여름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축제가 열리는 도시를 찾아 뮌헨이나 잘츠부르크, 베로나를 거



1 채석장 오페라 극장 진입통로 2 극장 객석을 꽉 채운 관람객 3 무대 앞에서 만난 오페라 '마술피리' 출연진들

점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빈(Wien)에서는 음악회를 만날 수 없기에 합스부르크家の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빈 예술사박물관과 알베르티나 미술관,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만날 수 있는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빈(Wien) 근교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소에서 멋진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빈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의 작은 마을 장크트 마르가르텐(Sankt Margarethen)은 1세기 로마시대부터 이어온 대규모 채석장이 있다. 글 서두에 빈(Wien)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부르겐란트 주의 주도인 아이젠슈타트(Eisenstadt)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아이젠슈타트, 약간 생소한 도시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지원했던 헝가리의 귀족 가문인 에스테르하지(Eszterházy) 가문의 본거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아이젠슈타트(Eisenstadt) 이름은 독일어로 '철의 도시'를 뜻하기도 한다.

장크트 마르가르텐 채석장의 오페라는 오스트리아의 극작가이자 오페라 평론가인 마르셀 프라위(Marcel Prawy)의 제안으로 채석장 오페라 축제(Oper im Steinbruch)라는 이름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이후 매년 7월과 8월,

여름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에서 오페라 공연 뿐 아니라 클래식과 팝 음악이 어우러진 콘서트가 열렸고, 2001년부터는 오페라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원래 채석장이었던 이 자리는 2~3천 만년 전에는 해저의 일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석회암 암석에는 선사시대 산호초나 성게를 볼 수도 있다. 이 채석장에서 나온 석회암으로 빈의 슈테판 성당(Domkirche St. Stephan), 그리고 게른트너 거리(Kärntner Ring)를 따라 지어진 웅장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연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축제극장은 관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의 세계로 안내한다.

장크트 마르가르텐의 채석장 오페라 무대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야외 공연장 중 하나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 무대이기도 하다. 약 7천 제곱평방미터의 면적의 야외 콘서트홀은 암벽을 둘러싸고 있어 너무나도 멋진 음향을 제공한다. 채석장의 자연과 인공의 건축물로 만든 무대가 어우러져 오페라 축제가 펼쳐지는데 최대 4,7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석양이 질 무렵 태양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 암석의 색상과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페라의 무대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

필자가 처음 장크트 마르가르텐 오페라 축제에 걸음했던 2019년 여름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가 공연되었다. 이 시즌 유럽의 야외 오페라들은 대부분 호수나 아레나와 같은 인공의 건축물에서 공연되는데 채석장이라는 배경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오전에는 아이젠슈타트 시내에 있는 에스테르하지 궁전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하이든이 봉직했던 곳이라 음악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 유명한 하이든 교향곡 45번 ‘고별’이 초연된 곳이기도 하다.

야외극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조명을 둘러싸고 철제로 벽과 계단이 이어져 있는데 철의 도시인 아이젠슈타트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채석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식당과 더불어 인터미션과 공연 전후로 와인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공연시간이 다가올수록 제법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오페라 무대에서 만날 때면 그 어느 작품보다도 무대와 의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 뮤지컬 ‘라이온 킹’을 연출했던 줄리 테이머(Julie Taymor)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에서 보여준

‘마술피리’ 무대와 의상, 그리고 데이비드 파운트니(David Pountney)의 브레겐츠 페스티벌 14/15시즌에서의 ‘마술피리’는 아직도 회자된다. 그리고 2019시즌 이곳 장크트 마르가르텐에서 만났던 오페라 무대도 이전 작품 못지 않았다.

새 동지를 연상시키는 원형의 무대는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수백 개의 구(球:Sphere)가 군을 이루며 무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면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명은 막의 변화 없이도 화려하게 장면 장면의 인상을 남기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 몇 명은 전동 이륜차의 원조 격인 세그웨이(Segway)를 타고 등장하는 획기적인 모습마저 보였다.

2014년까지 예술감독을 맡았던 볼프강 베르너(Wolfgang Werner)가 떠나고 현재는 카타리나 라이즈(Katharina Reise)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밖에도 시니어 매니저먼트 팀과 아티스트 리딩 팀까지 5명이 협력하여 축제를 이끌고 있기에 해마다 기대가 큰 오페라 축제이다. 브레겐츠 페스티벌과 같이 매년 작품이 DVD로 제작되어 나올 만큼 인기가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 채

4 2019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5 조명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마술피리’ 무대 6 석양지는 채석장 외벽





7 뢰르비슈호수 축제 극장 8 2019 레하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무대

석장에서 열리는 장크트 마르가르텐의 오페라 축제 역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인근 노이지들러 호(Neusiedle See)를 배경으로 뢰르비슈(Mörbisch am See)에서 비슷한 기간 뢰르비슈 호수 축제(Mörbisch Seefestspiele)라는 이름으로 오페레타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곳을 찾게 되면 연박을 하면서 두 편의 야외무대 공연, 오페라와 오페레타를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오페레타 페스티벌이기에 프란츠 레하르(Franz Lehar)와 같은 작곡가의 인기있는 오페레타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나 '왕과 나(The king and I)'와 같은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기도 한다.

필자가 방문했던 2019년은 프란츠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Das Land des Lächelns)'를 만날 수 있었다. 오페라 축제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오페레타를 주제로 한 축제는 드물다.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하다. 뢰르비슈 오페레타 축제의 경우는 극장 객석 아래에 대형 레스토랑이 있어서 제법 근사한 저녁을 공연 전에 즐겼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채석장과 호수라는 무대 배경 때문에 인근에서 다른 대도시처럼 손쉽게 레스토랑을 찾을 수 없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근처에서 숙소

를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 빈(Wien)까지 차로 한 시간이면 달기는 하나 21시에 시작하는 야외 오페라 특성상 밤늦게 공연이 끝나고 되돌아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인근 도시 아이젠슈타트의 숙박 여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국경을 넘어 헝가리 쇼프론(Sopron)을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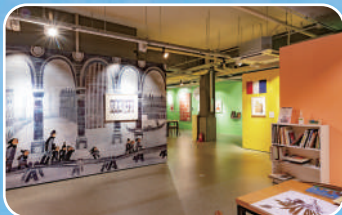
독일어로는 외덴부르크(Ödenburg)라 불리는 이 도시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1919년 생제르맹 조약에 따라 독일인이 상당수 거주하던 외덴부르크는 오스트리아의 영토로 정해졌으나 1921년 주민투표로 쇼프론은 헝가리의 영토로 결정되었다. 인구 6만명의 쇼프론은 포도주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한데 인구 만명의 작은 도시 아이젠슈타트에서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것과 다르게 호텔도 제법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있는 가운데 조금씩 여행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2022년 장크트 마르가르텐 채석장 오페라에서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Nabucco)'가 7월 13일 프리미어 공연을 시작으로 8월 14일까지 공연된다. 그리고 이웃의 뢰르비슈 오페레타 축제에서는 '왕과 나'를 야외 호수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진역에서 문화여행 떠나요

시민마당 문화플랫폼

박나무 자유기고가



1905년생 부산진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어떤 사람의 지난한 인생사를 듣는 것 같아 짝하다. 1908년생 부산역보다 형이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동생에게 넘겨준채 묵묵히 일만 하다가, 1920년 열다섯살 되던 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다. 1935년 동해남부선이 생기면서 종착역으로서 큰 역할도 한다. 사람도 서른살쯤 되면 한창 일할 때 아니겠는가. 부두와 가까워 화물역으로서도 큰 몫을 했고, 1965년부터 4년간은 부산역 공사로 메인역의 역할도 한다. 완행열차의 종착역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부산진역은 그러나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100세 되던 2005년에 여객역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문을 닫는다.

사망선고를 받은 부산진역은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며 15년 넘도록 방치된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게 싫은 사람도 있었다. 부산비엔날레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시적이었고, 누군가는 그 건물과 앞마당을 헐어 아파트나 상업시설 혹은 돌을 합친 주상복합을 올리고 싶었겠지. 공간을 탐내는 사람은 많지만 쉬이 사고파는 사유지도 아니라 감히 어찌지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도시의 흉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구청의 강력한 요청으로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이 2022년 4월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제 부산진역은 사라졌지만,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부활한 셈이다.





커피에 관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커피박물관

플랫폼이란 말이 유행처럼 떠돌지만 내가 그 단어를 처음 접한 곳은 철도역이다. 타야할 기차를 잘 골라서 타기 위해 머무는 곳. 공급자와 소비자가 접점을 이루는 곳이 플랫폼이고 보면, 이제 문화플랫폼은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역할하겠지.

현재 메인전시장에서는 볼로냐 일러스트 전시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어린이도서박람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아동문학계의 유명작가 50인의 대표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비행기 타고 나가서 볼 전시를 부산 동구 한가운 데서 열고 있는 셈이다. 그냥 쳐다만 보는데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스탬프도 찍고,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다. “손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경고문도 없다. 그냥 자유롭게 뛰고 놀고 떠들면 된다.

시민들에게 넓은 마당도 생겼다.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원도심은 송곳이라도 꽃을 땅이 있으면 집을 짓고, 장사를 해야 했다. 덕분에 세상 좁은 골목이 가득한 곳에, 봄벌 푸르른 잔디밭이 마당으로 제공되었으니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한 것과 같다.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를 보호합시다” 마당에도 이런 경고문은 없다. 그냥 자유롭게 뛰고 놀고 떠들면 된다. 마당에서는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플리마켓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술쇼에 시민들의 끼자랑도 열릴 예정이다. 큰 파라솔에 피크닉매트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여유를 즐긴다. 내가 잘 사는 것은 통장이나 부동산이 증명하겠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런 공공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로 가능되는

것 아닐까? 시민들이 문화를 특별한 시공간이 아닌 일상에서 즐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살만한 나라의 문화정책 아니겠는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시관 오른쪽에 자리한 커피 박물관도 꼭 가 볼 일이다. 시대별로 커피를 추출하던 기구 수백 점이 시대별로 기능별로 잘 자리잡고 있다. 동구평생학습관 주관의 커피클래스와 부산대평생교육원 특별과정 커피아카데미도 열고 있어, 커피에 관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한창 공사 중이다. 완공되면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배우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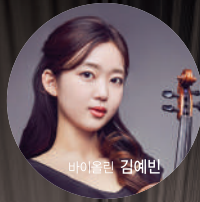
모든 걸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돌아선 부산진역에게 인사를 전해야겠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늘 함께입니다.”

■ 문의 / 부산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0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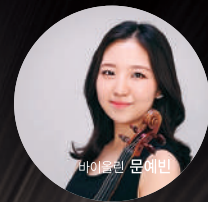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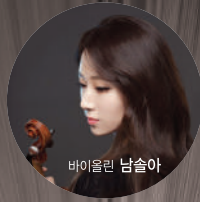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바이올린 김예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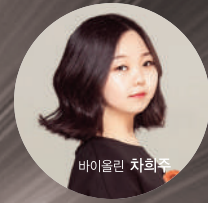
바이올린 문세빈



바이올린 남솔아



바이올린 서경



바이올린 차희주



바이올린 황주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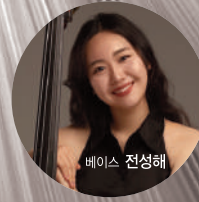
트럼펫 한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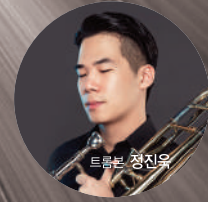
트롬본 김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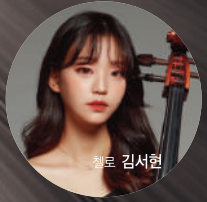
바순 김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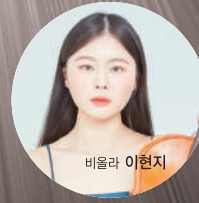
베이스 전성해



트롬본 정진욱



첼로 김서현



비올라 이현지



첼로 심아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합주단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 음악회

2022. **6. 25** (토) 16:00, 19: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무료

문의 051-607-6000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 **지난해 제2회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추진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던 연극 ‘코마’가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공연예술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신진 등용문으로 마련한 무대로, 지난해 1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완성도 높은 신작을 ‘메이드 인 부산’ 레퍼토리로 발전시키고자 2022년도 공식 기획프로그램으로 초청한 무대로,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 보충하여 보다 완성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청년극단 빅픽처스테이지의 연극 ‘코마’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노리면서 갖가지 범죄행위로 사건이 조작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범죄심리스릴러 연극으로, 지난해 공연에서도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산 속 별장에서 생활하는 여자 백혜령. 거친 눈보라가 불어오던 어느 날, 한 남성이 불현듯 찾

아온다. 남성의 간절함에 결국 혜령은 문을 열어주지만 시종 일관 말을 더듬는 남성과 무언가 숨기는 듯한 두 모녀는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현관의 문소리에 혜령과 남성은 긴장하게 되고, 남성은 총을 챙겨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쫓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들려오는 총성 소리. 무사히 돌아온 남성의 표정은 광기가 서려있고, 혜령은 그런 남성에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작품명인 ‘코마’는 혜성의 핵을 둘러싼 물질을 뜻하는 단어로, ‘불행이라는 별이 꼬리를 물고,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다. 지난 2019년 부산창작희곡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듬해인 2020년 부산예술제 ‘수수한 연극 초청전’에 선정되면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희곡과 연출을 맡은 김정환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가족을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희대의 사이코패스 ‘엄여인’을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제작했다고 밝혔다.

일 시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합동교류음악회



● **부산과 공주를 대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이 6월, 부산과 공주에서 합동교류음악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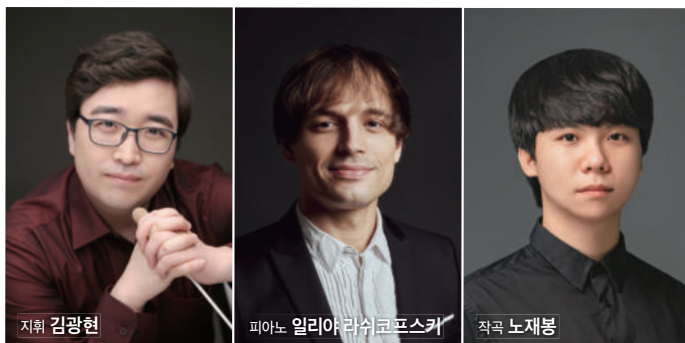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생과 화합의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은 6월 15일 부산문화회관에 이어 22일 공주문예회관에서 함께 연주한다. 지난 1997년 백제의 고도(古都)이자 세계문화유산도시인 공주에서 우리음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은 지난 2020년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공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곡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다양한 관현악곡을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만의 색깔로 표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국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토요풍류', '신바람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의 합동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2부에서는 명확한 곡 분석과 우아하고도

파워풀한 배턴 테크닉으로 호평받는 박승희 예술감독이 지휘한다.

1부 첫 곡으로는 고종 때 궁중 무희였던 리진의 이야기를 소재로, 궁중에서 춤을 추는 리진의 모습을 상상하며 관현악으로 표현한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성화정 곡)을 들려준다. 이어서 풍부한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장단을 거문고의 강렬함으로 담은 거문고 협주곡 '섬화'(최지운 곡), 흥겹고 독특한 경기굿의 분위기를 관현악과 노래로 구성하여 엮은 신내림(박범훈 곡)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에서 거문고 협주곡 '섬화'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전현진이 협연한다. 2부에서는 황해도민요인 몽금포타령 주제에 의한 변주인 서곡 '달빛향해'(원일 곡)에 이어 원곡인 양금협주곡을 서양악기인 마림바 협주곡으로 재구성한 '바람의 노래'(홍정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백제 문화의 중심, 금강을 노래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금강 <역동의 강>'(이정호)을 들려준다. 개작 초연곡인 '바람의 노래'는 DCMF 신포니에타 수석으로 있는 마림바 주자 김지향이 협연을 맡아 마림바 특유의 아름다운 음색을 국악관현악 속에 녹여낸다.

일 시 6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이 6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광현이 객원지휘하고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위촉작곡가로 선정된 노재봉 작곡가의 신작 초연무대도 마련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김광현은 그동안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니,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로이틀링겐 필하모니 등을 지휘했으며, 특히 2015년 국공립 음악단체의 수장으로는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2021년까지 교향악단을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정기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학부 재학생 최초로 지휘한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 10여 편이 넘는 오페라와 발레 '돈키호테', '지젤' 등을 지휘하여 관객과 평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첫 곡으로는 '현대적인 감각과 거시적 짜임새, 디테일을 잘 다

듬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재봉 작곡가의 '모리'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위촉곡으로 세계 초연된다. 노재봉은 지난해 2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신진 작곡가로, 부산작곡마당 창작합창곡 공모전 당선(제11회, 13회), 향신회 콩쿠르 입상(제11회) 등 다수 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어서는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부에서는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에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을 들려준다. 한국 초연으로 들려주는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는 그의 두번째 피아노곡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곡으로, 소박한 분위기의 피아노 버전과 달리 같은 곡이라고 느끼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멜로디를 느낄 수 있다. '죽음의 섬'은 독일계 스위스 화가 비클린의 동명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고요한 가운데 온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가 담겨있다.

일 시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 춤추는 별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들려주는 달과 별의 하모니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삶을 바쳐 그림을 그렸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런 그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 주었던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빈센트와 테오가 주고받았던 700여 통의 편지와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들을 통해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흐는 1890년 7월 29일,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까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900여 점의 페인팅, 1,100여 점의 드로잉과 스케치 등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고흐는 생전에 수백 통의 편지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대부분은 동생 테오에게 쓴 것이다. 빈센트의 감성적인 삶에 있어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테오는 그런 존재인 형을 재정적, 정신적으로 끝까지 지원해주었다.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한 지 6개월 후, 동생 테오가 형을 위한 유작전을 여는 데서 시작한다. 아내 요한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를 위하여 유작전을 강행하는 테오는 빈센트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그림들을 정리하면서 그와의 기억을 더듬는다. 편지와 함께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시간을 여행하는 빈센트와 테오. 다른 시공간 속에 있지만 평생에 걸쳐 서로를 의지하고 믿었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의 방' 등 고흐의 그림이 3D 프로젝션 맵핑 등의 최첨단 영상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 살아 움직이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여기에 2014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작곡, 음악감독으로 참여,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두 형제의 못다 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2022년 더욱 탄탄한 구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의 배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림을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역에는 다양한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경수가 다시 돌아오며, 매작품에서 힘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박민성이 새롭게 합류한다. 동생 테오 역은 다양한 작품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황민수와 윤은오가 맡아 개성넘치는 연기를 선사한다.

일 시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만 11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스페인 컴파냐 안토니오 나JARRO

2022년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BIDF)

The 18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22

김영걸 댄스아티스트



희망의 춤, 부산에서 하나되다

6월, 부산의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The 18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BIDF)'가 6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무용제로 개최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부산국제무용제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시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오랜만에 바다가 바라다보이는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난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특히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지난 2009



2022. 6. 3(금)-5(일)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중구 유리리광장,
부산시민공원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T. 868-7881
www.bidf.kr

년부터 경연부문인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를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BIDF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 젊고 유망한 무용수들이 국제적인 경력을 쌓아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의 춤, 부산에서 하나되다'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필리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홍콩, 프랑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베트남, 독일, 아르헨티나 등 11개국 4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김용걸 댄스시어터, 와이즈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멜랑콜리, 시나브로, KARTS무용단, C2무용단, 위너스크루, 모헤르댄스프로젝트, 박시종, 동래학춤, 부산농악보존회, 마홀라컴퍼니, Code Sassy 등 14개팀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6월 3일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개막축하 공연으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보존회의 '동래학춤' 무대에 이어 프랑스 CIE ART MOUB 'WAITING for JAMES B', 김용걸 댄스시어터 'La Stravaganza', 스페인 COMPAÑIA ANTONIO NAJARRO 'EXTRACTS OF ALENTO AND QUERENCIA I' 등 4개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외 공식초청공연 단체가 출연하는 BIDF 공식초청공연은 6월 4일과 5일 이틀간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며 부산 바다를 춤으로 물들인다. 4일 축하공연으로 열리는 부산농악보존회의 '부산농악'을 비롯해 국립현대무용단 '불편한 마중', 김용걸댄스시어터 'Cuatro niñas', 박시종무용단 '춤타올라', 시나브로 가슴에 (COMPANY SIGA) 'Zero', 와이즈발레단 '그랑파드트루아(해적 중)', '베니스 카니발', 위너스크루 'Girl Crush VS Boy Crush', 모헤르댄스프로젝트 '집속의 집 ver.3', 멜랑콜리댄스컴퍼니 'Übermensch', C2Dance '눈물의 무게', KARTS무용단 'tHE baD' 등 국내 11개팀과 필리핀 Saint Louis University Dance Troupe 'Panagani(Kalinga)', 'Kanyaw(ifugao)', 베트남 ARABESQUE 'THE

MIST', 이스라엘 ANADance Company 'Introtention Coda', 카자흐스탄 Dance Group ALTAI 'folk dance', 홍콩 TS crew 'made in Hong Kong', 프랑스 CIE ART MOUV 'WAITING for JAMES B', 인도네시아 Chakil Squad Art Community 'Kasetyan Jati(True Love)', 스페인 COMPAÑIA ANTONIO NAJARRO 'EXTRACTS OF ALENTO AND QUERENCIA I, II' 등 해외 7개팀이 이틀간 다채로운 춤의 향연을 펼친다.

부산국제무용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BIDF폐막식은 공식초청공연 후 저녁 8시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WC댄스컴퍼니의 무대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모바일댄스 시상 및 세레모니가 진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모바일댄스는 앞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진행을 통해 경연을 펼친 바 있다.

무용제 기간에 앞서 5월 15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또 하나의 공식 행사인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이 펼쳐졌다.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경연'은 부산국제무용제의 장학지원 사업으로, 무용계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안무가들이 서로의 역량을 겨루는 안무 경연 무대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한창호 '사라지다', 김동윤 '모던라이프', 신원민 'Rose(장미)', 정건 '에고 네비게이터', 김병규 '거리두기' 등 다섯 작품이 참가하여 정건의 '에고 네비게이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밖에 부산지역 전문 무용단의 'BIDF 열린춤무대'는 5월 28일 영화의전당 야외무대를 시작으로 6월 3일과 5일, 중구 유라리광장과 부산시민공원에서 펼쳐지며, 무용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3회 BIDF 코리아댄스 그랑프리(국제무용콩쿠르)'는 7월 12일과 13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2022년 제19회 부산국제연극제

The 1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2

부산국제 연극제

2022 BIPAF 개막작
극단 실험극장 '에쿠우스'

2022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6월 10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열렸던 부산국제연극제는 지난해는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연극축제로 시민들과 만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었던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리트’가 APEC나루공원,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센텀시티역에서 열리는 등 다시금 ‘부산 최대의 공연예술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에 스미는 예술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이번 2022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콜롬비아, 스페인,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 등 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초청공연과 거리극 경연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리트’,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를 위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 ‘힘내라 부산!’, 그리고 청년지원 프로그램인 ‘힘내라 청년’과 청년연극제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공연, 시민참여프로그램 ‘10분연극제’, 프린지, 아트마켓 등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2022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극단 실험극장의 ‘에쿠우스(EQUUS)’. 피터 쉐퍼의 원작을 가장 잘 살린 역대 최고의 무대라고 찬사받고 있는 ‘에쿠우스’는 현대인의 영원한 화두인 이성, 본능, 열정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잠재된 욕망에 대해 심도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에쿠우스’는 지난 1975년 극단 실험극장이 전용극장 개관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당시 신극 사상 최초로 2만 명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관객동원을 기록한 바 있다. 폐막작인 극단 물결의 ‘귀여운 여인(The Darling)’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처음 관객과 만난다.

BIPAF



2022 BIPAF 폐막작
극단 물결 '귀여운 여인'



극단 터 '막차타고 노을 보다'



와이즈폴스 '공중그네 히어로'

초청작인 광주 극단 터의 '막차타고 노을 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끝으로 가는 막차를 타고도 붉은 노을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핀란드의 서커스 트리오 와이즈폴스(Wise Fools)의 '공중그네 히어로'는 독창적인 트리플 공중그네 서커스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스위스의 곡예 아티스트 안 힘셀프의 '#패션'은 이색 스트리트 패션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핀란드 출신의 곡예 듀오 케이트와 파시가 선보이는 '관계(SUHDE)'는 커플의 연애 과정을 그들만의 감수성과 현란한 곡예 서커스로 풀어내며, 이스라엘의 인형사이자 배우인 오르난 브레이어의 '리틀 러브 머신(LITTLE LOVE MACHINE)'은 그만의 독창적인 무대에 독특한 음악과 강력한 시각적 요소가 더해져 신선한 충격을 준다. 초청작은 국내작인 '막차타고 노을 보다'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부산을 닮은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인 '다이나믹 스트리트'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국제연극제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으로,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연극, 마임, 음악, 무용, 신체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이 눈 앞에 펼쳐진다.

지역 예술단체를 위한 지역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에서는 극단 누리에 '파 한 단, 두부 한 모'와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가 무대에 오

른다.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얘기를 다룬 '파 한 단, 두부 한 모'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지친 당신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복녀씨 이야기'에서는 자갈치시장의 트러블메이커 박복녀와 몽골에서 시집온 자르갈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과정을 통해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올해 처음 마련된 청년지원 챌린지 '힘내라 청년!'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극단 잠방의 '축하케이크', 21세기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가을 반딧불이', 원룸에서 동거하는 룸메이트 세 친구를 통해 청춘의 일상을 녹여낸 아이컨택 '룸메이트' 등 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누리에 '파 한 단, 두부 한 모'

부산국제연극제 주요 일정

개막작

극단 실험극장 '에쿠우스(Equus)'

6월 10일(금) 오후 2:00, 8:00

6월 11일(토)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폐막작

막작 극단 물결 '귀여운 여인(The Darling)'

6월 18일(토)-19일(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초청작 I

극단 터 '막차타고 노을 보다'

6월 12일(일) 오후 6:00, 13일(월)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초청작 II

와이즈폴스(Wise Fools, 핀란드) '궁중그네 히어로'

안 힘셀프(스위스) '#패션'

케이트&파시(핀란드) '관계(Suhde)'

오르난 브레이아(이스라엘) '리틀 러브 머신(Little Love Machine)'

6월 10일(금)~19일(일)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중계

다이나믹 스트릿

광대상자 '뽕스!!!'

창작극단 분홍양말 '초복목수와 목각인형'

원태운 마술사 '매직저글링쇼'

매직큐레이션랩 '피어나다'

저글맨 '쓰레기 청소부'

하다 아트컴퍼니 '사운드팩토리-일상을 연주하라!'

환술극단 담 '피우고... 피우다'

6월 18일(토)-19일(일) 오후 1:30~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APEC 나루공원

지역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

극단 누리에 '파 한 단, 두부 한 모'

6월 11일(토)-12일(일) 오후 6:00 하늘바람소극장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

6월 15일(수)-16일(목) 오후 8:00 소극장6번출구

청년지원 챌린지 '힘내라 청년!'

극단 잠방 '축하케이크'

6월 12일(일) 오후 6:00, 13일(월) 오후 8:00 공간소극장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가을 반딧불이'

6월 14일(화)-15일(수) 오후 8:00 열린아트홀

아이컨택 '룸메이트'

6월 17일(금) 오후 8:00, 18일(토) 오후 6:00 레몬트리소극장

BIPAF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가을 반딧불이'



아이컨택
'룸메이트'

반가운 시도, 또 하나의 예술적 클리셰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 이상현 춤 비평가

비참한 전쟁에서 살기 위해 떠밀려 온 이들을 맞이한 것은 바다였다. 그들에게 바다는 여가나 낭만의 대상이 아니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출렁이는 거대한 벽이었다. 끝을 짐작하거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송고하기까지 한 벽 말이다. 그래서 바다 곁에 오래 있었지만, 바다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지난 5월 20일과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부산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2020년 8월 취임한 이정윤 예술감독(겸 수석 안무자, 이후 '감독')이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중앙동 40계단을 모티브로 부산의 역사를 다룬 첫 작품이다. 무용단의 어느 작품보다 공연 전부터 부산 예술계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무대가 열리면 업 스테이지 쪽을 조금 높인 경사진 무대에 첼로 연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묵직하게 깔린다. 경사진 무대는 40계단을 표현한 동시에 평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삶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듯하다. 느리게 시작한 군무가 음악 변화에 따라 점차 활기를 띠면서 작품 전체의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군무의 끝은 막춤이다. 막춤은 기원이 없는 춤이다. 각자의 의식적 생활에서는 감추어지거나 억압된 몸짓이 튀어나와 춤이 되었다. 막춤은 40계단으로 대표되는 '애환의 공간'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억눌린 신명의 분출구다. 이로써 1장에서 작품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준다.



작품은 ‘부산으로 드는 시간’, ‘바다와 바다, 그리고 바다’, ‘40계단, We Wre Here. (아직 여기에 있어요)’, ‘바다 멍(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으로 구성했다. ‘바다와 바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바다 1, 2, 3’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작품을 끌고 가는 것은 3명의 노인이다. ‘바다 1, 2, 3’에서 3명의 사연이 각각 펼쳐지는데, 전쟁이 남긴 이별, 상처, 애환과 그 아픔에 매몰되기보다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극복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1장 ‘부산으로 드는 시간’에 신발 한 짝이 나온다. 주인 잃고 나머지 한쪽마저 사라진 신발은 부재로 나타나는 존재의 흔적이다. 2, 3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신발은 절절한 이별의 아픔이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자식의 신발을 찾는 이성원이 연기한 노인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식 잃은 부모를 대표하는 캐릭터이다. 늙어서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만, 힘겹게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바다 2 생과 사의 춤’에서 이정식이 연기한 지팡이 짚은 노인은 전쟁에서 동료로 잃은 상처를 지녔다. 이병우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애절한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한국전쟁 자료화면이 지나간다.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 죽음의 문턱을 넘은 이들과 살아남은 자에게 전쟁과 애국은 처절하고 슬픈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노인의 상흔은 진혼무로 보이는 군무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아픈 기억은 남는다.

‘바다 3 miss 고(琴)’에서 김병주가 연기한 휠체어 탄 노인은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캐릭터이다. 거칠게 툭툭 끊어지듯 시작해서 점점 가락을 찾아 부드럽고 격렬하게 이어지는 거문고 연주하는 노인(3)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승화하는 과정을 표현했다. 노인은 기어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과 신명이 담긴 훌춤을 춘다.

6장에서 앞서 3명의 노인을 통해 보여 준 부산 사람들 삶에 각인된 과거의 아픔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음을 모르스 신호로 알린다. 끝길 듯 이어지는 신호는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 여성 군무진이 서로 어깨를 견고 계단 위로 올라 존재를 알리는 손짓을 보낸다. 7장은 씻김이다. 전 출연진이 무대를 채우고 비가 내린다. 아픔과 굴곡진 삶으로 얼룩진 대지를 적시는 비를 맞으며 추는 춤은 고난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살아

내는 민중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이다. 이때 비로소 바다가 그들을 품어 쓰러진 이들을 파도로 밀어 대지에 안착시킨다. 절망과 상실의 바다가 위안과 희망의 바다로 다가왔다.

이번 공연에서 이정윤 감독은 특유의 독창적 공간과 역동적인 군무가 자아내는 춤의 힘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무의 밀도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고난도 동작을 보기보다 감성적이고 여유로운 동작 위주의 춤으로 안무했다. 작품 배경의 시대적 상황과 아픔, 애환, 슬픔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싶다. 긍정적인 면은 이정윤 감독이 창작 방식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특징을 잘 이용해 적절하게 캐릭터를 분배한 점도 의미가 있다. 돋보이는 부분은 40계단이라는 모티브가 자칫 신파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음악으로 이 위험을 비껴간 점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경상도 아가씨’ ‘희망가’ 같은 대중가요를 이용하면서, 첼로 연주로 상투성을 약화하고, 잡음 많은 LP 버전으로 관객이 얇은 감성에 젖을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거문고 연주를 통해 대중가요에 적당한 무게를 실었다. 음악에 강한 예술감독의 세심한 연출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40계단을 모티브로 삼은 것은 양날의 칼을 진 모양새가 되었다. 부산 사람들은 온갖 형식으로 다룬 40계단 이야기에 익숙하다. 거부감은 없지만, 한편으로 어지간한 방식으로 40계단을 풀어낸다고 해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이 작품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규모가 큰 무용작품으로 40계단을 다룬 적이 없기도 하고, 부산 사람이면 누구나 익숙한 이야기와 감성에서 당대적 의미를 춤으로 어떻게 찾아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당대적 의미가 빠진 과거를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술한 사연과 세월에 피어난 상처투성이들의 춤과 영혼들의 만남은 드라마틱한 움직임과 음악, 설치·조형의 미술과 영상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댄스 시어터로 드러난다’라는 작품 콘셉트(concept)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이 댄스 시어터 형식의 실험적 시도라고 해도 부산 관객이 기대한 40계단의 당대적 의미는 구체화하지 못한 것 같다. 시도는 반갑지만, 결국 또 하나의 예술적 클리셰(cliché)를 확인한 것으로 끝났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새 시대를 여는 이태석 신부의 선한 영향력

제11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새 시대의 기상’

◆ 하순봉 작곡가

코로나의 맹위가 진정세로 접어든 5월은 그동안 미뤄 왔던 음악회들이 하나둘씩 열리면서 본격적인 시즌이 기대되는 희망찬 분위기였다. 그중에서도 지난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조금 의미있는 음악회가 열렸는데 다름 아닌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활동과 의료 봉사를 하다 2010년 48세로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를 기념하는 음악회였다.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 기념음악회는 2012년 처음 시작되었고 제1회부터 지금까지 지휘자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BSO)가 함께해왔다. 이미 이태석 신부에 대한 기념 사업은 영화나 책 등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날 음악회는 더욱 특별한 것 같았다. 우선 이 신부의 고향인 우리 부산에서 하는 행사이고 또 많은 관객이 함께했으며, 부산은행과 부산의 모든 언론 방송사들이 함께 후원을 하면서 새삼 이 음악회의 성격과 비중이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음악회를 통하여 이태석 신부의 삶을 짧게나마 돌아보면서 문득 두 가지 성경구절이 생각났다. ‘이 땅에 진정한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이 먼저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밀알을 퍼트리는 밀알의 비유가 떠올랐다. 모두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 필부들의 삶을 보며 정말 이태석 신부는 새삼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숙연하게 만든다. 그는 내전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에서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총칼을 들고 노는 아이들에게 특히 음악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지를 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수단의 새 시대를 여는 밀알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날 음악회의 부제인 ‘새 시대의 기상’은 수단의 아이들에게도 또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들에게도 의미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연주된 곡은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빼고는 모두 차이콥스키의 작품이었다. 보통 러시아의 음악사를 보면 러시아 5인조가 크게 언급이 되고 차이콥스키는 생각보다 그 분량이 적게 나오는 편인데 그 이유는 차이콥스키의 작품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교향곡부터 협주곡, 발레음악, 서곡, 오페라까지 각 장르마다 걸작을 남겼고 특히 그의 관현악을 다루는 수법은 최고의 경지에 있다. 이런 극적인 관현악으로 인해 차이콥스키는 음악사의 비중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휘자들이 가장 즐겨찾는 작곡가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이날 연주된 차이콥스키의 작품들도 그런 관현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구성이었다. 첫 곡은 <대관식 행진곡>으로 차르 알렉산더3세의 대관식을 위해 위촉된 곡으로 짧지만 승리의 팡파레로 기상과 위엄이 넘치는 곡이었다. 그의 또 다른 명곡 <1812년 서곡>이나 <슬라브 무곡> 등이 연상되었다.

두 번째는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변주곡>이 송영훈의 첼로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차이콥스키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러시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그의 음악은 크게 범유럽적인 어법을 구사하는 작곡가라는 것이다. 그런 성향은 그의 모계가 프랑스 쪽인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당시 러시아는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이었다. 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 스타일의 우아하고 귀족적인 로코코 양식을 좋아했다. 이 작품은 바로 그런 차이콥스키의 로코코에 대한 오마주인 셈이다. 편성은 첼로협주곡 같지만 이 곡은 제목에서 보아 지듯 분명한 변주곡이다. 로코코풍의 주제가 7개의 변주로 펼쳐진다. 또 곡 전체의 분위기도 분명히 기존의 협주곡과는 다른 단아한 실내악을 듣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극적인 면과 화려한 맛은 덜하지만 로코코의 우아한 절제미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다. 송영훈의 무르익은 첼로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런 실내악적인 대화를 잘 주도해 나갔다.

세 번째는 라이징 스타인 송지원의 협연으로 역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이 연주되었다. 설명이 필요없는 이 장르의 최고봉의 작품이다. 한마디로 격렬한 이 협주곡은 대작

답게 사연도 많다. 당시 초연을 의뢰받은 아우어가 연주가 불가하다며 퇴짜를 놓았고 비평가들도 형편없다고 혹평을 하였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음악사의 걸작들에는 이런 초연 시의 에피소드가 많다. 아마 작품의 혁신성 때문에 기존의 작품들에 익숙한 연주자들과 청중들에게 한 번은 비판을 받는 그런 산통과도 같은 통과 의례가 아닌가 싶다. 이날은 3악장만 연주되었는데 특히 후반부에서는 관현악과 솔로가 동기음형을 주고받으며, 절정으로 치닫는 마지막 대미에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솔리스트 이 삼박자의 몰아일체가 펼쳐지는 리듬의 향연이 폭풍처럼 관객들을 몰아치는게 단연 압권이었다.

네 번째는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으로 그의 마지막 협주곡이다. 이 장르의 걸작으로 브람스의 중후한 음악이 차이콥스키의 그것과 대조가 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두 솔리스트는 결국 관객들의 호응에 앵콜로 헨델/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하였다. 괴테는 현악4중주를 ‘네 명의 현자의 대화’라고 했는데 이날 이들의 연주는 ‘두 현자의 대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었다. 긴장과 완급을 조절하는 두 사람의 완벽한 대화는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내면서 봉공연보다 더욱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날의 피날레는 <이탈리아 기상곡(奇想曲)>이었다. 기상곡은 카프리치오(capriccio), ‘자유분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차이콥스키는 이탈리아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악6중주 <피렌체의 추억>도 이탈리아에 대한 곡이다. 금관의 팡파레로 곡이 시작되는데 1879년 로마 여행 시 호텔 근처의 연병장에서 들리는 기상 나팔소리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 곡은 제목답게 다양한 성격의 주제가 많이 나오고 많은 타악기들이 등장하여 화려하고 이국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이날의 대미로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

BSO의 연주를 봐온 지도 벌써 꽤 오랜 세월이 되었다. 이제 BSO가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인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BSO의 장수와 이태석 신부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해 본다.

내 삶에 슬픔이 필요한 이유

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 김영희 연극평론가,
경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작가 김숙경

<슬픔이 찬란한 이유>(이하 <슬픔>)는 2021년도 부산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창작희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올해로 불혹의 세월을 넘긴 부산연극제에서도 대상을 받았는데, 박현영이 연출하고 극단 <이야기>에서 만들었다. 희곡과 연극에서 두루 인정을 받은 셈이지만, 먼저 작가 얘기로 시작하고 싶다.

<슬픔>은 김숙경이 쓴 희곡이다. 그녀는 <거기, 두루마음이 있다>, <올드 브라더미싱>,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등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그 의미를 잔잔하게 보여주는 작가이다. 극단 <모이라>를 이끌면서 1년에 한 편씩 성실하게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는 연출가이자 극단 대표이기도 하다. 경성대학교 연극학과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니, 그녀를 따라붙는 꼬리표는 실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극작과 연출을 동시에 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자신이 쓴 희곡을 직접 연출하는 사람이 드물지는 않다. 허나 그녀는 연출가로서 희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극작가로서 자신이 쓴 희곡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녀가 만든 연극은 대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강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으로서 말하는 자들이니 당연하게도 김숙경은 희곡이라는 문학을 통해서 삶이 주는 질문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그런데 그녀의 희곡을 연극화할 때, 그 연극은 자주 ‘조용한’ 연극으로 비추어진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긴장과 대결의 시선으로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무대 위에 특별하게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마치 일상적 삶의 연장으로 무대를 인식하려는 작가의 태도로 보인다. 이는 조용한 그녀의 성격과도 통한다. 갈등이 있는 현장의 전면에



나서서 투쟁하고 쟁취하기보다는 자신이 쓴 작품을 통해서 사회 부조리를 들여다보는 것, 자신이 만들어 낸 인물을 통해서 일상의 삶과 소중함을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 이것이 김숙경의 희곡이 조용하게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슬픔>을 연출한 박현형은 작가의 이런 개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삶에서 '슬픔'이 갖는 의미를 연극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일상적인 인물과 갈등이 없는 무대

<슬픔>의 무대는 일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사실적인 무대다. 무대 오른쪽은 방파제와 바람의 노래 카페 그리고 만향비빔밥집이 있다. 무대 왼쪽은 내부는 보이지 않은 채 산동반점 간판만 보이고 가게 실내로 오르는 옥외 계단이 노출돼 있다. 무대 뒤편 중앙에는 폐가가 생뚱맞게 서 있는데 한눈에 봐도 다른 것들과 부조화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곳은 동해에 있는 해룡마을이다. 바다 전망이 좋아 관광객이 찾기도 하는 곳인지라 카페와 밥집이 모여있지만 철거되지 못한 폐가와 시위대의 시위로 분위기는 어찌 좀 어수선하다.

늦가을 점심이 지난 시간, 산동반점 비상구 문이 열리고 동엽과 인준이 등장하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연극 속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상가 분위기가 살아나길 바라는 번영회장 총식, 바닷가에서 횡집이 아니라 개성 있게 속이 편한 비빔밥집을 하는 만향, 카페를 하는 소현과 버스킹 가수 은주 그리고 소현을 사랑하는 중국집 아들 동엽과 아르바이트생 인준, 폐가를 둘러싼 영우와 남자가 그들이다. '남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갈등과 갈등의 해결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극적이라는 말은 비상한, 평범하지 않은, 뜻밖의, 긴박함과 반전을 내포한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은 결말을 향해 긴장감으로 충만한 채 전개되는 것이다. 관객은 주인공의 이야기

에 몰입하면서 자기 일상을 잠시 잊고 극적인 사건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의 목소리는 주인공의 서사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연극의 주인공을 위해서 그들의 존재를 잠시 드러내는 장치로 축소된다. 하지만 어디 우리 삶이 그런가.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에서 주인공이다. <슬픔>은 특정한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각자 삶에 놓인 슬픔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슬픔>에서는 뚜렷한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만향은 스님이 되려다가 스승 스님의 하산하라는 말을 듣고 출가를 포기했고, 소현은 암 투병을 하면서 5년 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해룡마을에서 바람의 노래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은주는 병원에 노래 봉사를 갔다가 만난 소현과의 인연으로 해룡마을에 버스킹을 하러 왔고, 번영회장 총식은 오래전 시집간 누나를 따라 이곳으로 내려와서 떡집을 한다. 이 모든 일은 극이 올라가기 전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연극은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로써 현재의 모습을 극 중에 보여줄 뿐이다.

그나마 갈등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영우와 정숙 정도를 들 수 있다. 영우는 오래전 엄마를 성폭행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을에 나타났지만, 엉뚱하게 범인은 원한을 가진 다른 인물에게 바다에서 살해돼버린다. 복수는 더는 의미가 없어지고 엄마가 살았던 옛집인 폐가는 팔기로 한다.

정숙은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고통에 빠졌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물이다. 기상이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다. 남편이 구조 요청을 했지만, 해경이 적절한 조치를 안 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해경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숙은 해경의 늑장 대



응에 분노하고 의문의 한 시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세월호가 연상되기도 한다.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 영우와 정숙이지만 그들의 갈등 역시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되지 못한다. 그저 갈등을 내포한 상황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연극은 주인공도 없고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다. 결국 <슬픔>은 일상적인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삶의 반영을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슬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버스킹 가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녀는 병원에서 노래 봉사를 하다 만난 소현과 인연이 되어 이곳 해룡마을에 왔다. 그녀는 정숙의 피켓 시위를 도운 후 세상이 투명해질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한다. 세상은 각자 이해로 너무 복잡해서 투명해지기 어렵다는 인준의 회의적인 대사에 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결연함도 보인다. 소현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연극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은주가 그런 대사를 할 만한 심리나 성격적 개연성이 연극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 꿈을 찾아 대전에서 온 초등학생과 소년의 아버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초등학생이 밤마다 반복되는 꿈에 등장하는 폐가를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아들이 걱정돼서 찾아온 아버지는 현생에서 부자로 맺은 인연의 소중함을 깨우친다. 허나 이 두 사람이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폐가를 더욱 드라마틱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무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슬픔이 찬란한 이유

슬픔은 찬란하지 않다. 슬픔은 무겁고 어둡고 축축하고 부정적이다. 슬픔을 찬란하다고 한다면 관객은 역설적인 태도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연극은 ‘슬픔이 찬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앞에서 정숙이 울고 악을 쓰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만향은, 슬픔에 빠진 자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슬픔에 빠진 자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만향은 슬픔에 빠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슬픔을 안고서라는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행복은 슬픔에 기대어 빛을 발한다. 슬픔이 없는 자는 행복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우리가 행복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한결같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매일 행복할 수가 절대 없다. 쉽게 익숙해지는 후각처럼 행복은 금방 모습을 감추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허수아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기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골치 아픈 질문들은 모두 잠재우고 그냥 행복하기로 합의한 것 같다.” 주인공의 대사처럼 우리는 행복한 것보다는 행복을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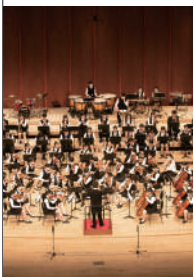
삶은 지겹고 반복적이고 화나고 힘들고 무력하고 혼돈스러운 것이다. 그래도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자기 무대이다.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를 찾고 ‘소를 몰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삶이다. 결국 슬픔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슬픔>은 우리에게 슬픔의 미학을 들여다보게 하고 슬픔의 긍정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연극이다.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 삶에 주어진 슬픔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일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철학의 힘에 기대서가 아니라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산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4회 음악정기연주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가 매년 수업을 통해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음악전공자들이 관현악 연주에서부터 합창, 기악 및 성악 솔로,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4번 바단조 작품 52
루토슬라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변주곡

하이드/천지창조

드보르작/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53
베르디/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서곡 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성배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연꽃으로 물들이다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010-6450-5942



지난 2016년 8월 창단 후 합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삼경에 피는 꽃, 사랑의 노래, 귀의하는 마음, 부처님의 진리길, 한송이 연꽃, 동해 갯마을 등 수곡

- 단장/이옥숙
- 지휘/문정재 • 반주/구화진
- 사회/아나운서 김성필
- 승무/손태희 • 바이올린/박완서
- 특별출연/BTN 불교TV 남성중창단, 풍물밴드 이상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베토벤과 브람스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연정 010-6844-2533



깊이 있는 음악해석과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 독주회.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신시네티대학에서 연주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연정은 그동안 독주 및 협연, 실내악 뿐만 아니라 지휘자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작곡가 윤이상을 선택한 김연정은 2014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윤이상 곡을 연구, 발표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윤이상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을 한국 초연으로 연주한 바 있다.

김연정은 현재 프라미스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더드리머스뮤직에듀 대표, 강남대학교 영재교육원 외래교수로 있다.

- 피아노/김은정

바리톤 유용준 리사이틀
세 번째 이야기 'BELCANTO'

일 시 | 6월 5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유용준 010-8694-20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수석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립음악원 오페라, 보컬코치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G. 도니제티 아카데미 합창

지휘·뮤지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서온 바리톤 유용준 리사이틀.

2018년 정규1집 앨범 'This is for YOO'에 이어 2019년 미니2집 앨범 'Genere D'amore'를 발매하기도 한 유용준은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전문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벨칸토'를 부제로 한 이번 무대에서는 19세기 대표적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 가에타노 도니체티, 빈첸초 벨리니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최영민

소프라노 박소영 귀국독창회

일 시 | 6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소영 010-5855-3429



영혼을 어루만지는 유려한 음색과 풍부한 호흡의 울림을 가진 소프라노 박소영 귀국 독창회.

부산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도독,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오페라과와 콘체르트&리트가를 최고

점수로 입학, 석사과정을 복수전공하며 음악적 기반을 확립한 박소영은 독일 막데부르크극장 연수단원, 바이마르 국립극장 종신단원을 역임하며 고전과 현대, 오페라와 종교음악을 넘나드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쌓아왔다.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의 리릭 소프라노인 박소영은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 피아노/조시은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일 시 | 6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윤지영 010-5165-3744



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표현력 있는 강한 음색을 지닌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후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디플로마 및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국제 아

카데미를 졸업한 윤지영은 그동안 국제콩쿠르 'Giovani Talenti' 1위, 'Porana Lirica' 1위, 'Luigi Stramesi' 1위 및 'Gian Battista Viotti' 특별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태리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윤지영은 귀국 후 4차례 독창회와 오페라 주역,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KBS '열린음악회' 등 폭넓은 활동으로 대중들과 만나왔다.

- 피아노/안준희

이은경 작곡 발표회 와유의바람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이은경 010-4198-0236



현재 부산국악작곡가회 회원이자 해운대학교 임마누엘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이은경 작곡 발표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은경은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거문고악회, 일파가야금연주단, 호산가야금연주단, 해금연구회, 권은영 거문고 독주회, 최유리 해금 독주회, 이대하 거문고 독주회, 하정희 타악독주회 등 다양한 단체 및 개인 연주회의 위촉곡을 작곡했으며, 작곡음반 '바람숲을 발매한 바 있다.

프로그램

연리목, 그림자, 와유의 바람, Face to Face, 打를 위한 점&선, 작은별 2022
• 특별출연/장선희(춤), 권은영(거문고)

소프라노 김소라 귀국 독창회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편덴 010-8384-5451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서트바토리 성악과 및 리트&오라토리오과, 이탈리아 로마 A.I Art음악원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체코 등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김소라 귀국 독창회.

김소라는 그동안 '사랑의 묘약', '버섯피자'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부산문화재단 파견 예술가, 브니엘예고 전교 실기강사, 고신대학교 학점은행제 출강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K.165
슈만/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42
멘델스존/오라토리오 '엘리아' 중 '들어라 이스라엘'
J. 막스/마리아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서형진

레이비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레이비앙상블 010-9841-1006



고신대학교 기악과 동문들로 구성된 레이비앙상블의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진, 김지훈, 손모아, 첼리스트 황선지, 플루티스트 서하영, 피아니스트 이상미, 손모아로 구성된 레이비

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는 솔로, 트리오 등 다양한 구성과 함께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명곡과 대중음악으로 꾸며지며,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희정&서혜리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6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혜리 010-3596-1964



부산, 경남 등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과 피아니스트 서혜리의 듀오 리사이틀.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김희정은 연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과정, 에센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귀국 후 현재까지 15차례 독주회와 기획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장으로 있는 서혜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미국 신시네티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 2013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로, 앙상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해설/김윤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합동교류음악회

일 시 | 6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과 공주를 대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이 함께하는 합동교류음악회.

프로그램

성화정/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
최지운/거문고 협주곡 '섬'

박범훈/신내림

원일/서곡 '달빛향해'

홍정의/마림바 협주곡 '바람의 노래'

이정호/국악관현악을 위한 '금강 <역동의 강>'

• 지휘/김중욱, 박승희

• 거문고/전현진 • 마림바/김지향

소프라노 엄남이의 12번째 이야기 소프라노 엄남이, 이현서와 함께하는 2인 음악회

일 시 |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엄남이의 12번째 무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엄남이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해 금정수요음악회,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한국 가곡의 밤 등 다수 무

대에 서왔으며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을 비롯해 오페라 주역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현서가 함께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가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초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 피아노/이주화

知絃 season1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지현 010-3006-818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의 가야금 독주회.

이번 무대는 가야금 신곡을 선보이는 무대로, 특히 이번 독주회를 위해 작곡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이정호 교수의 위촉

곡이 초연된다.

프로그램

항병기/남도환상곡

이건용/25현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미키 미노루/25현가야금 독주곡 '소나무'

이정호/25현가야금 독주곡 '비를 위한 소묘' [위촉작연]

- 장구/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사회/김지윤(부산예술대학교 강사)

테마오페라
베르디의 4여인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오텔로',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의 여주인공을 테마로 기획한 특별한 무대 '베르디의 4여인'.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의 거인'이라 불리는 세계 오페라사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평생 26편의 오페라를 남겼으며 이 중에서도 이른바 5대 작품이라 불리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오텔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들 오페라에 등장하는 4명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을 오페라로 제작한

'오텔로'에서 사특한 음모에 넘어가 남편 오텔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데스데모나 역에는 소프라노 김유진, 만도바 공작의 궁정광대로, 호색하던 공작을 부추겨 귀족의 부인이나 딸을 농락하던 아버지 리골레토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질다 역에는 소프라노 박현진, 어려서 헤어져 정부군과 반군의 지휘자가 되어 만난 백작의 두 아들 사이에 끼여 결국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잃는 레오나르 역에는 소프라노 김아름, 순진한 청년 알프레도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채 죽음을 맞이하는 파리 사교계의 무희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김소울이 맡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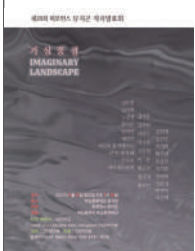
특히 오페라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해설가인 테너 장신권이 베르디 복장으로 출연, 해설을 통해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 소프라노/김유진, 박현진, 김아름, 김소울
- 테너/손정희, 김준연, 장신규
- 바리톤/문정현
- 피아노/김효성, 김란
- 해설/장신권

제28회 퍼포먼스 뮤지콘 작곡발표회
가상풍경 Imaginary Landscape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퍼포먼스 뮤지콘 010-9902-3549, 010-9741-3579



지난 2009년 작곡가 김보현을 중심으로 결성된 작곡·연주단체 퍼포먼스 뮤지콘의 작곡발표회.

그동안 현대음악 작곡발표, 연주, 퍼포먼스와 같은 음악적 활동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의 대중 소통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뮤지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음악회와 작곡발표, 국제교류 등을 통해 현대음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

'가상풍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회원들 외에도 오스트리아 작곡가 피터 안드로쉬, 네덜란드 작곡가 안 반 데 푸테, 그리고 독일의 타악기 연주자이자 음향예술가인 베르트 블레페르트의 작품이 발표된다.

- 연주/무지카비바앙상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여행
오페라 갈라 콘서트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SJ 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최고의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즐거운 오페라 이야기. 그 첫 무대에서는 두 여인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카르멘'과 '나비부인' 갈라무대로 꾸며진다.

비제의 대표적인 오페라 '카르멘'은 집시 여인 카르멘과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푸치니의 '나비부인'은 미국 해군장교 핀커티에게 버림받은 일본인 나비부인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연되고 있다.

- 예술감독/소프라노 배우진
- 음악감독, 해설/조완수(비올라)
- 테너/윤석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피아노/이희연
- 바이올린/송혜민, 고은아 • 첼로/박효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및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일 시 | 6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첫 번째 기념공연. 독일의 작곡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는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대작으로, 그동안 영화나 광고음악으로도 널리 사용되던

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작품이다.

- 지휘/이기선 • 연출/김지용
- 안무연출/박근태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부산청년무용수 더파크댄스

권준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 프로젝트 시리즈 콘서트 3

일 시 |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권준 010-4658-7963



고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권준의 독주회.

서울대학교를 4년 전액 우등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Mozarteum)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움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준은 그동안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열었으며, 2015년부터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슈베르트 작품으로만 구성된 기획 연주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3개의 피아노 소품 D.946, 소나타 가단조 D.845, 방랑자 환상곡 D.760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테너 조윤환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관객의 감성을 이끌어 내는 연주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홍선화는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대학교와 뉴욕주립대 펠체이스 대학원 전문연주자과정, 뉴욕시립대 브루클린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2018년 귀국 후 다양한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베르그 등 고전과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2022 대한민국 희망콘서트 in Busan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함께 가자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문 의 | 필컴퍼니 010-2510-3504



필컴퍼니 기획으로 마련되는 2022 대한민국 희망콘서트.

수많은 오페라 주역과 KBS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클래식 오딧세이, 콘서트 7080 등 TV,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과 친숙한

테너 류정필과 부산예술대학교 교수이자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세련된 음악적 감각과 매력적인 음색, 열정적인 음악성을 담아내는 소프라노 진윤희, 제2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안소는, 콰르텟 코아모르스(아코디언 알렉산더 웨이킨, 바이올린 김현수, 더블베이스 나장근, 피아노 문재인), 탱고커플 펠린 미겔 칼보가 출연, 각국을 대표하는 노래를 통해 세계여행을 떠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가곡 및 민요를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The Solist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평소 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단원들의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인다.

오후 4:00 출연

차희주(바이올린), 서가영(바이올린), 김성준(트롬본), 문예빈(바이올린), 황주예(바이올린), 남솔아(바이올린)

오후 7:30 출연

김가원(바순), 이현지(비올라), 김서현(첼로), 정진욱(트롬본), 전성해(베이스), 김예빈(바이올린), 한윤승(트럼펫), 성아란(첼로)

제5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 시 |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박정희 010-9841-1006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하는 제5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음악회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재학생 팀들의 다양한 앙상블 무대와 최지은, 박정희, 서혜리,

김정은 등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멋진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010-5141-0776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의 18번째 정기연주회.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지난 2003년 창단 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가져왔으며, 이태리 노비리구레시 순회연주를 비

롯 미국 링컨센터,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캄머무직장 연주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Viva la Vida, Viva la Harmony'라는 부제로 1부에서는 다성합창곡을 비롯하여 부산의 젊은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창작공모한 3곡의 창작곡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가수 김광석, 이문세 등 가요를 편곡한 합창과 더불어 다양하고 화려한 합창음악의 세계를 보여준다.

고신대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을 대표하는 많은 음악가와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역량있는 음악가를 배출한 고신대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

동문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교류를 통한 역량확대, 그리고 모교인 고신대학교 음악과를 알

리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오랜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전상철
- 피아노/안선애, 이승윤, 신현희, 고태욱, 조가영
- 플루트/오영인
- 첼로/이재성 • 바이올린/조완수
- 소프라노/정미순
- 테너/조윤환 • 베이스/권영기

부산여성실내악단 초청 평화기원 음악회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평화기원 음악회.

지난 1988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여성실내악단 초청연주

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 2부로 나뉘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글린카 필하모니 부지휘자로 있는 김현국과 부산여성실내악단 예술감독 김영근의 지휘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국민 작곡가 미로슬라브 스코리크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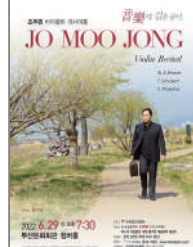
- 지휘/김영근, 김현국
- 소프라노/신선미 • 테너/김준연
- 피아노/김현국 • 바이올린/김소정
- 특별출연/첼리스트 톨마초바 옥사나

조무중 바이올린 리사이틀 음악에 길을 묻다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음악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피나는 연습으로 프레징의 자유로움을 구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독,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솔로 전문과정,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과정 및 실내악 전문과정을 졸업하며 솔리스트로서뿐 아니라 실내악,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조무중은 현재 앙상블 사운드스테이지 음악감독이자 나투어뮤직 부산 지부장, 트리오 피아체 멤버, 올웨이코리아 오케스트라 악장, 아모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정서미

제7회 드 콤마 정기연주회 우리 친구들 클래식은 처음이지?

일 시 |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5세 이상 관람, 학생 50% 할인)

문 의 | 드 콤마 010-8540-8636



바이올리니스트 이윤지, 박지윤, 비올리스트 이현원, 첼리스트 장여정, 퍼쿠니스트 김세연으로 구성된 현악앙상블 '드 콤마'의 정기연주회.

팀명인 '썬표처럼 고단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쉼과 문화의 향유

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결성된 드 콤마는 그동안 클래식, 영화음악, 드라마 OST, 대중가요 등 대중들의 귀에 익은 친숙한 레퍼토리와 편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친구들 클래식은 처음이지?'라는 부제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김영민 • 나레이터/고민지
- 작곡/황선영 • 플루트/박하영
- 소리/박세미

소프라노 윤경연 독창회

일 시 |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술기획 젼마 010-3187-7978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윤경연 독창회.

윤경연은 이탈리아 유학 시절 메르카토 산 세베리노콩쿠르, 라세냐 젊은 예

술가 콩쿠르, 빈센초 스키타무차 국제콩쿠르 1위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귀국 후에는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해설로 벨리니의 오페라 '카롤레티가와 몬테키가', 마스네의 오페라 '마농', 오브라도르스의 연가곡 등 유럽의 주요 도시와 그 도시와 융합되는 음악이 함께 한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일 시 | 7월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원(만 24개월 이상)

문 의 | (주)썬크브릿지 1533-7446



지난 2012년 출간된 후 '한국출판문화상', '창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고 1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어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백희나 작가의 동명의 동화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장수탕 선녀님'.

엄마를 따라 오래된 동네 목욕탕인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과 한바탕 신나게 놀며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수탕 선녀님'은 부모 세대에는 친근하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낯선 공간인 오래된 목욕탕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
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지난해 제2회 부산신진 예술페스티벌에서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추진 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던 연극 '코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청년극단 빅픽처스테이지의 연극 '코마'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노리면서 갖가지 범죄행위로 사건이 조작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범죄심리스릴러 연극으로, 지난해 공연에서도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작, 연출/김정환
- 출연/최현정, 박센, 이설

SELECT SHOP
십센치 X 소수빈 콘서트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SELECT SHOP'.

10cm는 기존에는 2인조 밴드로 활동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권정열의 원맨밴드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수빈은 2016년 셀프 프로듀싱한 '소심' 시리즈로 데뷔한 후 이후 드라마 '에이틴', '사랑의 불시착' OST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콘서트의 열기를 제대로 즐기 어려웠던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음악계의 하나의 아이콘이자 담백한 가사와 달콤한 멜로디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10cm와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매력적인 보컬과 일상을 특별하게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광현이 객원지휘하고 차세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위촉작곡가로 선정

된 노재봉 작곡가의 신작 초연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적인 감각과 거시적 짜임새와 디테일을 잘 다듬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재봉 작곡가의 '모리'를 비롯해 한국 초연인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광현
- 작곡/노재봉
- 피아노/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어린이뮤지컬 랫잇고2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4만4천원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랫잇고'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의 주옥같은 명곡으로 제작된 어린이 뮤지컬 '랫잇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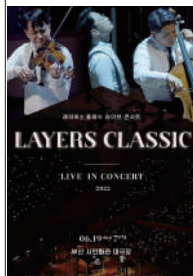
지난 6년간 전국 20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3,000여회 공연을 통해 누적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어린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랫잇고'의 새로운 무대로, '랫잇고(Let it go)'를 비롯해 into the Unknown, Show yourself, When We're Together 등 '겨울왕국'의 주제곡과 함께 발레 무대가 어우러지며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극작, 연출/이광열

레이어스 클래식 라이브콘서트
2022

일 시 | 6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어썸클래식스튜디오(02-6951-4130)



로 구성된 레이어스 클래식은 지난 2019년, 클래식 명곡을 재해석한 1집 데뷔앨범 'ONE DAY'를 시작으로 공중파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중형무진하며 꾸준한 뮤직비디오 공개로 자신들의 음악적 세계와 활동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상급 연주자로 이루어진 현악5중주와 함께 유튜브채널 인기곡들을 비롯하여 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탱고, 그리고 선보이지 않는 미공개 곡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유튜브 구독자 41만명, 누적 조회수 6,000만회'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이어스 클래식' 부산공연. 바이올리니스트 JYJ(김재영), 첼리스트 김대연, 피아니스트 DMK(강대명)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

일 시 | 7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 지역 청년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

이번 무대는 제1회 부산 버스킹페스타 본선무대로, 지난 5월 24일 서류 및 영상심사에 이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광안리, 서면 버스킹 실연을 통해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참가하여 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대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 모두 5개팀이 선정된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지난해 JTBC '싱어게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부산 출신의 가수 정홍일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 예술감독/김종균(락인코리아 대표)
- MC/조태준
- 게스트/가수 정홍일

음악

미러듀오 The 1st Concert
America-Russia Pianu Duo
정고은&김하림

일 시 |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미러듀오 010-7566-1212, 010-8008-6931



America-Russia Piano Duo
Ko Eun Jeoung & Ha Rim Kim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박종화 교수의 클래스메이트로 인연이 되어 결성된 피아니스트 정고은, 김하림의 미러듀오 첫 번째 콘서트 정고은은 미국 노던텍사스 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Ark 앙상블, 움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하림은 러시아 노보시비로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영재학교 및 국립 콘서바토리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코러스합창단, 벨라보체합창단, 벨라보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러듀오는 정고은, 김하림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것에 기인해 붙인 이름으로, 이번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더욱 친근감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관악의 멜로디

일 시 | 6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010-5468-4658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4월, 소외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에게 음악을 통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왔다. 상임지휘자 박성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페터 이나현의 협연으로 관악의 웅장한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태영/서곡-부산 신포니아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베토벤/교향곡 제1번 다장조 작품 21
• 지휘/박성은 • 트럼펫/이나현 • 작곡/김태영

모차르트콩쿨 부산지부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음악, 꿈으로 피어나다

일 시 | 6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대동대학교 D'art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모차르트한국콩쿨 부산지부 010-2662-1957



클라시코 예술기획과 모차르트한국콩쿨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차르트한국콩쿨 부산지부 수상자 음악회.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시코 예술기획 대표인 피아니스트 이영신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콘서트 가이드/피아니스트 이영신(클라시코 예술기획 대표)
- 동요/배은유
- 테너/최준혁 • 바리톤/박하민
- 첼로/정서진 • 클라리넷/김민석
- 피아노/백하은, 이아라, 김유정, 임지성

스페이스움 6월 음음악회

일 시 | 3일(금), 10일(금), 24일(금), 30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움, 17일(금) 오후 7:00 부산도서관 모듈락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7일 공연 무료)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3일(제458회) 최영민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부산대학교(학사)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이자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영민의 무대.

최영민은 그동안 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 대전국제음악제, 금호아시아나 로비음악회 등 3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왔으며, 작곡가로서 300여곡의 자작곡과 더불어 수백 곡의 편곡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프로그램

My Romance, La vie en Rose, 어떤 날, Nocturne in Db Major,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impromptu from 'Spring and Summer',

Youngmin Choi 편곡에 의한 2곡의 찬송가, Amazing Grace, 참 아름다워라 등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예니, 바리톤 유용준

10일(제459회) 지림씨의 재즈로망스 12번째
'이효정 밴드'

보컬리스트 이효정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돋보이는 라틴밴드인 '이효정 밴드'의 무대.

- 보컬/이효정 • 색소폰/이병주
- 피아노/하지림 • 베이스/박재훈
- 드럼/박성진 • 퍼커션/이영훈

17일(제460회) 2022 북테라피 콘서트

'집을 위한 인문학' [부산도서관] 부산도서관 모듈락극장에서 열리는 북테라피 콘서트.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국악밴드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의 흥겨운 오프닝 무대에 이어 'EBS 건축탐구 집'에 출연 중인 임형남, 노은주 건축가 부부의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



24일(제461회) 한여름밤의 꿈

초여름의 길목에서 들려주는 실내악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 폴 해리스/삼중주
- 장-미셸 다마즈/사중주 등
- 해설/박민음(작곡가)
- 피아노/강민희 • 클라리넷/조가진
- 오보에/문동원 • 플루트/박은주



30일(제462회) 소프라노 강주희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강주희 독창회.

강주희는 2018 세아 이운형재단 후원 아티스트, 시즌 20/21/22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하우스 소속가수를 역임했으며, 올해부터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 오페라하우스 전속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가짜 정원사', '돈 조반니',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브리튼 '한여름밤의 꿈', 마스네 '마농',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을숙도 예술공간

일 시 | 6월 7일(화), 14일(화), 21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술공간' 6월 무대.

7일(제10회) My Favorite Pieces II

부산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무대로 꾸며지는 제10회 예술공간.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조혜운은 이번 무대에서 세계적인 콩쿠르의 상임반주자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강형은,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윤종혁과의 앙상블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조혜운은 The Special Presentation Winner 오디션 우승 및 뉴욕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 보

스톤 국제 실내악콩쿨(ICMEC) 1위 및 실내악 데뷔 연주회(카네기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14일(제11회) 창작가곡 '부산을 담다'

지난 2002년 결성된 후 매년 발표회를 가져오다 2008년 창단공연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모임 잉태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해운대, 광안리, 송도, 태종대, 낙동강, 을숙도, 금정산, 구덕산, 용두산, 송악산 등 바다와 강, 산을 모두 품고 있는 부산을 테마로 작곡된 창작 합창곡 및 가곡을 들려준다.

- 작곡/최석태, 김보경, 박미선, 홍기영, 노선경, 이소진, 구영립, 백승태, 박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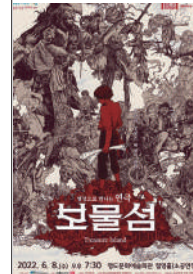
21일(제12회) 클래식맛집 세계여행

대중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색다른 콘텐트를 선보이는 BS오퍼스앙상블의 무대. 나라별 대표 작곡가들의 유명 작품을 선정,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이번 무대에서는 솔로, 성악, 트리오, 콰텟, 2 피아노 등 다양한 편성으로 클래식음악의 매력을 전한다.

- 피아노/최은주, 유영옥, 이보미, 진승민
- 바이올린/김희정, 김언정
- 첼로/이동열 • 바리톤/박기국

영도문화예술회관 주요상설공연 onStage

일 시 | 6월 8일(수), 22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상설무대.

8일 SAC on SCREEN 연극 '보물섬'

예술의전당 우수공연을 영상으로 만나는 무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험극으로 새롭게 탄생한 연극 '보물섬'을 대형화면으로 만날 수 있다.

22일 영도와 부산을 노래하다

영도와 부산을 노래한 작곡가 권태우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무대.

- 소프라노/강소영 • 테너/김현식, 방주원
- 바리톤/장광석 • 바이올린/권주연
- 색소폰/박종하 • 저대/안창섭
- 피아노/김아영, 강미

6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6월 무대.



8일(제780회) 나승준 바이올린 독주회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연주와 탁월한 음악적 기량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나승준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폴랑크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오혜진

15일(제781회) 소프라노 정은미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뉘셀도르프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그동안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정은미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 정은미는 헨델과 슈만, 슈베르트, 임태근, 이지수, 드보르작, 바그너 등 국내외 가

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하림 • 첼로/변은석
- 해설/이영희



22일(제782회) 루체살레 제3회 정기연주회 '프리마돈나 앙상블'

창원대학교 김유섬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루체살레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소프라노/김유섬, 박은주, 김유진, 김시하, 정수정, 김리라, 오예은, 민수연, 조윤정, 백혜정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손혜은
- 피아노/심하정, 권수빈
- 해설/김성민

29일(제783회) 이음소사이어티 콘서트

관객과 연주자를 잇는다는 의미로 이름붙인 이음소사이어티의 무대.

- 소프라노/노연수, 김아름, 이진영, 신지연
- 테너/장지현, 최요섭, 최현기
- 바리톤/최모세 • 피아노/김지혜, 전병하

피아노 듀오 콘서트 5인 듀오 음악회

일 시 | 6월 9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희정 010-5769-3346



피아니스트 박희정, 박민경, 김아영, 최우림, 강미 등 5인의 연주자가 마련하는 듀오 음악회.

박희정은 현재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부산피아노 연주자클럽 회원으로, 박민경은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동의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김아영은 부산반주연구회, 부산피아노 연주자클럽 회원으로, 최우림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강미는 부산로즈콰이어, 부산대mba합창단, 오순도순 우리가곡부르기반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포레, 거쉰, 마이클 코닉, 차이콥스키, 올손의 곡을 피아노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 트럼펫/박지윤

제8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로 마련되는 제 8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은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을 맡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작품 48'과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그리고 부산초연곡인 핀치의 '클라리넷 협주곡 다단조 작품 31' 등 음악을 통한 위로와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지휘자 오충근은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다.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특별 음악학교,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음악콩쿠르, 러시아 Sibir 콩쿠르, Nadezda 콩쿠르에 입상하고 프랑스 유러피안 국제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동훈은 현재 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EOPO) 수석으로 있으며 부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본 윌리엄스/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핀치/클라리넷 협주곡 다단조 작품 31 [부산초연]
프랑크/교향곡 라단조 작품 48

- 지휘/오충근(예술감독)
- 협연/백동훈(클라리넷)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가야금병창연구회 그 아홉번째 이야기 향수-들꽃

일 시 | 6월 12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010-3589-6878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동래성의 춘풍, 왜란의 서막,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방의 기쁨 등 총 4장으로 나누어 가야금병창 및 노래, 무용, 시조창, 시낭송, 국악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한다.

- 총괄감독/김현주 • 사회/고태연
- 연주/김현주, 권은영, 이수정, 하정희, 이미숙, 엄영진
- 무용/판 무용단 • 실내악/국악연희단 류

이데아예술포럼 THE SEA

일 시 | 6월 12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이데아 예술포럼 010-9587-9785



언어를 도구로 음악을 구현하는 니노 탈리아레니 교수의 성악 테크닉 'Cantarparlando(말하면서 노래하기)'를 추구하는 성악가들의 모임인 이데아 예술포럼의 무대.

'THE SEA'를 타이틀로, 바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도니제티를 비롯해 흥난파 '사공의 노래', 조두남 '벚노래'와 로시니의 연가곡 '베네치아의 경기', 채동선 '갈매기', 변훈 '명태', 그리고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나폴리 명곡들과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하는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 조콘다-노래하는 여인'의 주요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 소프라노/이윤순, 김수진, 김기원
- 테너/이재윤 • 바리톤/윤수빈
- 피아노/신세라

세계 여성 작곡가의 노래 여류(女流)

일 시 |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010-9587-9785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동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벨리씨미 성악연구회의 무대.

슈만의 아내로 알려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에도 조예가 깊었던 클라라 슈만과 가족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던 멘델스존의 누이 파니 멘델스존, 비제가 극찬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실 샤미나드,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곡가 김순애와 신세대 여성 작곡가 이원주 등 세계 여성 작곡가들의 대표곡들로 꾸며진다.

- 소프라노/이은미, 이윤순, 이지영, 장은영, 김기원, 백성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김찬이, 최성근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1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7535-6452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다양한 악기 전공자들이 출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지휘/오창록
- 클라리넷/이혜연(부산예고 3학년), 김민석(부산예고 1학년), 노서윤(부산예고 1학년), 김태린(부산예고 1학년)
- 플루트/정수빈(부산예고 3학년), 임현택(부산예고 2학년), 장서윤(부산예고 3학년)
- 색소폰/최인서(부산예고 2학년)
- 바이올린/김하은(부산예고 1학년)
- 첼로/장지혜(부산예고 3학년), 이지우(부산예고 2학년)

프랑스 가곡 월광 3부작 No.3 안 그리고 하얀 달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4만원, 청소년 2만원(12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부산오페라 010-7269-8776
www.busanopera.com



부산오페라가 2022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테마로 마련한 프랑스 가곡 '월광 3부작' 마지막 무대. 테너 김신호, 피아니스트 윤혜연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티, 뒤파르크에 이어 우아하면서도 감미로운 가곡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레날도 안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제1부 시(詩)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감옥, 백조, 별빛 없는 밤
제2부 애수 그녀의 평안은 나의 행복(오페라 '돈 조반니' 중), 부정, 제물, 요람(포레 곡)
제3부 시인 풍경, 아름다운 시간, 클로리스

제8회 굿모닝 콘서트 오래된 미래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 음악산책 굿모닝 콘서트 6월 무대에서는 영남지역의 국악인들이 전통 민속악을 받들고 계승하며 새로운 민속악을 창작하고자 지난 2016년 창단한 신민속악회 바다가 관객과 만난다.

신민속악회 바다는 전통 음악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해석하여 가장 한국적인 특색과 창의성을 담은 음악을 창작하는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 전통이라 말하는, 당시의 민속악이 우리에게 어떤 음악을 남겼는지, 과거의 음악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총 7곡의 신(新)민속악을 들려준다.

• 연주/정선겸(아쟁), 조희규(해금), 이재준(피리), 김영산(대금), 황한열(거문고), 장주영(장구), 이창희(피아노)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폴란다스의 개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4: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문 의 | 좋은사람들 070-4045-2302



지난 2010년부터 명화와 클래식이 함께하는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공연을 진행해온 일미터클래식의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폴란다스의 개'.

'폴란다스의 개'는 1872년 출간된 소년 네로와 파트라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위다의 소설을 지난 1975년,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큰 감동을 준 작품이다.

국내 최초의 클래식큐레이터 조숙현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화가가 꿈이었던 네로가 그토록 보고싶어 했던 루벤스의 성당벽화와 작품들을 일미터 클래식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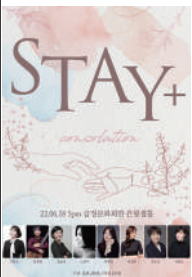
스테이 플러스(STAY+)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스테이 플러스 010-3198-1124



피아노전문 연주단체인 스테이 플러스(STAY+)가 음악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뜻깊은 무대. 피아니스트 이선화, 장효진, 구화진, 노은주, 김은정, 박재영, 정꽃님과 클래식기타리스트 김경태가 출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연주자 각자의 스토리텔링을 담아 다양한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인테메조 가장조 작품 118 제2번
라흐마니노프/네손을 위한 보칼리제 마단조
슈만/판타지 다장조 등

동행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 현(絃)의 노래

일 시 |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문화유목집단동행 010-2026-8280



지난 2021년 문화유목집단정도를 예술감독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문화유목집단동행의 두 번째 무대. 지난해 12월 창립음악회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문화유목집단동행은 이번 무대에서 소속 연주자들로 구성된 동행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클래식기타리스트 박승웅이 출연, 모차르트와 그리그, 슈베르트, 피아졸라 등 다양한 곡으로 관객과 함께 동행한다.

• 지휘, 해설/정두환
• 바이올린/이현우
• 클래식기타/박승웅

소프라노 김나정 독창회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나정 010-2530-7568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프라노 김나정 독창회. 부산음고콩쿠르 성악 일반부 1등, 개천예술제 성악 일반부 최우수, 엄정행 성악콩쿠르 은상, 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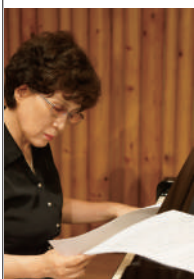
성악콩쿠르 여자일반부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김나정은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을 비롯해 다수 오페라 무대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태화강 이야기', '레미제라블' 등 주역을 맡아 관객과 만나왔다.

한층 깊어진 그녀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국가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글로벌아트홀 개관 제17주년 기념 신영순 작곡 발표회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글로벌아트홀의 예술총감독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신영순의 작곡 발표회.

동아콩쿠르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고 2002 아시안게임음악 작곡가, 국가상훈편찬위원회가 선정한 '현대의 주역들' 인물편에 수록되어 있는 신영순은 그동안 동서양의 음악 특징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서를 표출한 다양한 창작곡을 발표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트리오 '시온의 눈물, 어화동'과 시편 전편을 향한 신영순의 야심작, 'Psalms 아가(雅歌)'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오연진 • 테너/이기승
- 바이올린/백사론 • 첼로/이윤하
- 피아노/김미현

제38회 짜장콘서트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사전예약(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올해부터 '음악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짜장콘서트 6월 무대.

한국전쟁 제72주년을 맞아 '피란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라는 주제로, 6·25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을 소재로 하거나 부산에서 만들어진 노래, 그리고 전후(戰後) 부산에서 널리 불린 노래들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강소영, 김민성, 테너 양승엽, 베이스 박상진이 출연하며, 연주와 반주는 바이올린 김상희, 첼로 문준수, 피아노 이수민으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무지카'가, 진행은 이진이가 맡는다.

제2회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일 시 | 6월 27일 월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황승희 010-3254-9310



첼리스트 황승희와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두 번째 무대.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화OST, 가곡,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듀오 및 솔로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파사칼리아(헨델), You raise me up, 미뉴에트 제3번(바흐), 가을아침, Kazabue(영화 '웰컴 투 동막골' OST),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선들러 리스트, 하울의 움직이는 성, 협주곡 다장조(하이든), 에튀드 작품 25(쇼팽) 등 수곡

- 첼로/권재민, 권은지, 김만중, 이다형, 이규목, 손수아, 차정연, 이경아, 박주호, 김지유
- 바이올린/석나경, 박근식, 김신희, 조진영
- 반주/김우진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뉴욕에서 온 네 장의 사진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따뜻한 커피향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와 대중음악에도 폭넓게 사용되는 전천후 악기인 색소폰 연주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프랑스 리옹 국립음악원과 미국 신시내티움대를 거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온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와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팟캐스트 '술술 클래식'의 진행자이자 클래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과 클라라 슈만, 브람스와 미요, 라흐마니노프, 모리넬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이야기가 있는 김선영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선영 010-9985-0998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과 프랑스 세르지푸아르 국립음악원 디플로마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영의 이야기가 있는 피아노 독주회.

김선영은 프랑스 아마하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 프랑스 문화성 파리 음악콩쿠르 만장일치 1등, 프랑스 루앙 국제콩쿠르 1등, 오스트리아 디히러 콩쿠르 1등 없는 공동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 스크랴빈과 라벨의 작품을 들려준다.

울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첫 사랑 사수 작전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부산성악가협회 초청으로 열리는 울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6월 무대.

누구나 쉽게 오페라를 접할 수 있도록 오페라 '세 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의 주요 음악과 스토리를 연출가 이창원의 해설과 각색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익살스러운 연출과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연극

2022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이든과르텃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 2012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 온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가 올해부터는 11시 음악회로 새롭게 단장하여 관객과 만난다. 올해는 '청춘(靑春)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클래식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와 지역예술인과의 협업 프로그램까지 매월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진 음악들을 개성 있는 아티스트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18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 강렬하고 따뜻한 색채를 가진 팀으로 평가 받으며 꾸준히 성장 중인 현악 유망주 이든과르텃이 여름향기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연극 완벽한 커튼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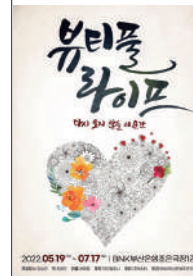
일 시 | 3월 24일(목)-7월 17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번에 두 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그리고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록홀츠'가 무대에 오르는 날, 분장실에서는 공연 전 준비로 정신이 없다. 드디어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만, 시작부터 실수연발,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에서는 공연은 뒷전인데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연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NG를 낼 수 밖에 없는 배우들의 해프닝과 그 모습을 실제 공연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관객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스태프까지 실제인지 공연인지 헷갈리는 기막힌 무대가 펼쳐진다.

2019년 한류문화대상 연극 뷰티풀라이프

일 시 | 5월 19일(목)-7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6/7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어디에나 있을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낸 '뷰티풀라이프'는 청년시절부터 노년시절의 춘식과 순옥을 심도있게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색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탄탄한 스토리와 휴먼 코미디 장르 특유의 감동으로 대히트 흥행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창작극 '뷰티풀라이프'.

지난 2019년 한류문화대상 뮤지컬/연극부문 수상작으로, 평범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뮤지컬 하데스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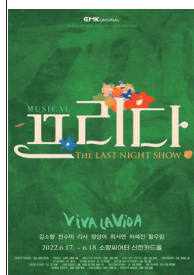
일 시 | 5월 20일(금)-6월 5일(일) 금요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 1577-3363



2019년 제73회 토니어워즈 '최우수작품상', 2020년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최고 뮤지컬 앨범상', 2021년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등을 수상한 뮤지컬 '하데스타운'. 지난 2019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 후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올해의 뮤지컬'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하데스타운'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로 향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리고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뮤지컬 프리다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7만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멕시코의 위대한 여성 화가이자 혁명가인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그려낸 창작뮤지컬 '프리다'. 프리다 칼로는 소아마비와 몸통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겪고 평생 후유증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현대 미술사상 가장 강인하고도 열정적인 삶을 그림에 담아내면서 중남미 여성 작가 중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됐을 뿐만 아니라, 피카소, 마르셀 뒤샹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당대 최고의 여성 예술가다. 뮤지컬 '프리다'는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앞둔 프리다 칼로가 토코쇼 '더 라스트 나이트 쇼'에 출연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 한다.

육군 창작뮤지컬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

일 시 | 7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지난해 UN 가입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여섯 번째 군 창작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블루헬멧:메이사의 노래'. 가상의 국가 카무르에서 나온 자란 '라만'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준 UN평화유지군의 '메이사(카무르어: 밝은 별)'를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라만역의 박찬열(예소), 연준석 역의 배우 장기용, 윤선호 역의 김효진(온앤오프) 등 현재 군복무중인 아이돌과 배우들이 출연한다. 특히 카무르와 한국,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구성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K-POP이 더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일 시 | 6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에스제이이엔티 1599-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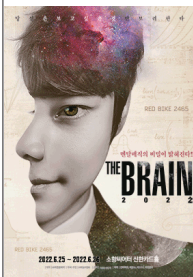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흥행작,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킬앤하이드'는 한 인물 안에 선과 악, 두 인격이 공존하는 인간의 이중성과 엠마, 루시와의 사랑을 탄탄한 스토리로 풀어낸 스릴러 로맨스 장르로,

지난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후 독일, 스웨덴, 일본,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 10개국 이상에서 공연됐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 초연된 후 누적 회차 1,500회, 누적 관객 수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고난도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선과 악의 양면성을 보여줄 지킬/하이드 역에는 박은태, 카이, 전동석이 맡아 압도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022 최현우 'THE BRIAN'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26일 일요일 오후 1:00,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하늘이엔티 02-333-9009



상상 그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매직 콘서트 '2022 최현우 더 브레인(THE BRIAN)'.

'더 브레인'은 전 세계 마술의 트렌드인 '멘탈매직'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인 첫 번째 시리즈로, 마술의 퍼포먼스 요소와 심리학, 뇌과학, 행동과학 등 과학 전문지식을 융합한 최현우의 대표적인 공연 브랜드이다. 멘탈매직은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멘탈리즘'을 활용한 마술로, '더 브레인'은 지각능력, 연속의 법칙, 기억력의 법칙, 서브미널 효과(돌발적 학습)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송영조가 자문에 참여했다. 이번 무대에서 최현우는 멘탈리스트로 변신, 관객과의 치밀한 두뇌게임을 펼친다.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내 친구 송아지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한국의 슬픈 전쟁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인형극연구소 인스의 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

2018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 제14회 아시테지 겨울축제 개막작, 제26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올해의 우수작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내 친구 송아지'는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단편소설 '송아지'를 서정적 감성의 무대언어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6·25 동란시절 시골소년 돌이와 돌이네가 기르던 송아지와 우정을 그린 애잔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용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이 터널

일 시 | 6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박은지 010-3305-3477



자유로운 몸짓과 한계 짓지 않는 움직임, 몸이 말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창단한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어쩌면 흠 많은 한 인간이 살아온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 과정 중, 내면이라는 검은 터널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과 흠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털어내고자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진 마음들에 관해 춤으로 풀어낸 '이 터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해 현실에서 벗어난 춤으로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에 깊게 도달한 뒤 다시 돌아와 현실에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의미가 두고 있다.

• 안무/허성준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제41회 졸업작품 발표회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999-5301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마련하는 졸업작품 발표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는 지난 1979년 1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문을 연 대학교 무용학과로, 지금까지 21세기 창조적 전문 무용예술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11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들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작품

존재(김승인), Another me(이가현), 타임슬립(김지우), Love myself(배운주), 刺客(허소희), 어먼소리(김민지), AMALGAMATION(박주영), 구원(김동희), 여(김진원), 홀로 거닐다(박태울), Que no es sueño o realidad(강혜주)

콘서트

장사익과 친구들 여행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영화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석 9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재)영화영화전당 780-6060



가슴을 울리는 영혼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장사익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여행'.

국악과 재즈, 클래식 그리고 가요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구축해온 장사익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감독 정재열을 위주로 한 재즈밴드와 모듬북을 포함한 타악 연주자들, 그리고 한국 프로 아카펠라의 시작인 솔리스트 멤버들 등 오랜 기간 그와 음악적 교감을 가져온 연주자들이 출연, 그가 직접 만든 노래들과 그의 입에 곡사는 주옥같은 가요들까지 농익은 맛과 멋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보헤미안랩소디 with 오케스트라 - 부산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60



전설적인 락밴드 '퀸(Queen)'의 음악을 콘서트로 만나는 특별한 무대 '보헤미안 랩소디 with 오케스트라'.

이번 무대에서는 길병민(레떼아모르), 김현수(포르테디콰트로), 황건하(라비던스), 곽동현(인기현상) 등 4명의 팬텀싱어 스타들이 출연, 'Bohemian Rhapsody', 'We are the champions', 'Somebody To Love', 'Radio Ga Ga' 등 과거 전 세계의 관객을 열광하게 한 퀸의 명곡을 들려준다.

특히 영화의전당 빅루프의 화려한 조명과 오케스트라 연주, 팬텀싱어의 화음이 어우러져 한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2022 포레스텔라 콘서트

일 시 | 6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B석 8만8천원

문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민고 보는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 포레스텔라가 첫 미니앨범 'The Beginning : World Tree' 발매와 함께 마련하는 2022년 전국투어 콘서트. 강형호, 고우림, 배두훈, 조민규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타고난 감각과 넘치는 끼, 음악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클래식, 가요, 팝, 국악까지 모든 음악장르를 넘나들며 무한한 음악변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JTBC '팬텀싱어 울스타전', '팬텀싱어2', KBS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과 자신들의 명곡들을 엄선, 관객들과 만난다.

2022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테마연극제 멈춤_Stop Doing It 모집

일 시 | 5월 2일(월)-6월 20일(월)

참가비 | 10만원

문의 | 극단새벽 245-5919



극단 새벽이 지난 2020년 시작된 후 매년 열려온 2022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테마연극제를 앞두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

테마연극제는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테마(이슈)로 예술의 사회적, 공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참여형 예술제로 올해는 '멈춤_Stop Doing It'이라는 주제로 멈춰진 일상에서, 멈춰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다.

올해 테마연극제는 오리엔테이션(6월 25일)을 시작으로, 교육과정(7월 2일-8월 13일), 창작과정(8월 20-9월 17일), 연습&제작과정(9월 19-10월 21일)을 거쳐 10월 연극잔치(10월 22일-23일, 27일-30일)를 갖는다.

• 모집대상/개인(30명 이내) 및 단체(5명 내외로 구성된 팀)

6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6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바그너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6월 3일(금) 바그너 오페라 해설(다큐포함)

6월 10일(금) 로엔그린

6월 17일(금) 트리스탄과 이졸데

6월 24일(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콘서트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12만원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전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영광클래식 음악감상회'.

매주 금요일,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 '신세계교향곡', 슈베르트 '아라페지오 네 소나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헨델 오페라 '리날도'

모차르트 클라레넷 협주곡,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비발디 '2대의 만돌린 협주곡 RV532', 헨델 오보에 협주곡

생상스 피아노협주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슈베르트 '바위위의 목동', 바하 '예수는 나의 기쁨'

제17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호국, 여행,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김병래 시인 외 초대시인

에필의 종합대중예술 렉터콘서트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시를 만나다 켈틱음악편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초대(예약순 마감)

문 의 | 에필 최정옥 010-3853-6634



지난해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시를 만나다'를 출간한 월드뮤직 해설가 및 세계미술 해설가인 에필 최정옥이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3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펼쳐는 종합대중예술 렉터콘서트.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시를 만나다'는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세계 미술, 세계영화, 세계의 시, 세계 역사가 유기적으로 스토리텔링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5년간 대학,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왔다.

6월에는 찬란한 슬픔과 감미로운 우울의 아일랜드 켈틱음악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미술,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시, 아일랜드 역사를 만난다.

6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13일(월), 20일(월), 27일(월) 오후 7:00

16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3일(월) 오후 7:00 영화, 글쓰기의 맛

• 강사/김영광(영화 평론가)



16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시 토크 낭송과 낭독, 이나열시인과 함께하는 하루 '싱그러운 속도가 있다' (이나열 시집 2022)

20일(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 '낭만주의 회화와 음악(1)'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청도라움Y 대표)

가, 청도라움Y 대표)

27일(월) 오후 7:00 길이 시작되자 여행은 끝나 버렸다:루카치와 소설과 근대

• 강사/전성욱(동아대 기초교양대교수)

부산도서관 북테라피 콘서트 집을 위한 인문학

일 시 |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부산도서관 모듈락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EBS 건축탐구 집'에 출연 중인 임형남, 노은주 건축가부부의 집에 깃든 사람의 생각과 온기, 삶을 풀어보는 북테라피 콘서트.

땅과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둘 사이를 중재해 건축으로 빚어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임형남, 노은주는 가온건축(studio_GAON)을 운영하며 그동안 가장 편안하고, 인간답고, 자연과 공존하는 집을 만들어왔다.

강연에 앞서 오픈 무대에서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국악밴드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전시

성자연 사진전 유보된 순간

일 시 | 4월 4일(월)-6월 18일(토)

BMW 포토 스페이스

문 의 | BMW 포토 스페이스 792-1630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토요일은 오후 3:00까지, 일·공휴일 휴관)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프로젝트

박중우展 부산 이바구

일 시 | 4월 30일(토)-8월 2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사진가의 창의적 시선으로 부산의 도시 공간을 직접 탐험하고, 그 안에 내재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프로젝트.

다각적인 식견과 직관적 시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위상을 제시해온 작가 박중우가 그의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 대한 과거 기억들을 불러낸다.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with마리쿠테알파벳동물원

일 시 | 4월 22일(금)-7월 3일(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구 부산진역사)

입장료 | 관람권 6천원

문 의 | 부산동구청 440-4065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선정한 세계 유명작가 50명의 아름다운 일러스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특히 호주를 대표하는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 마리쿠테가 사자와 기린, 캥거루, 공룡 등 다양한 동물

을 알파벳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재탄생시킨 알파벳 동물원을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오후 6:0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스누피 한국특별전

일 시 | 5월 5일(목)-6월 24일(금)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장료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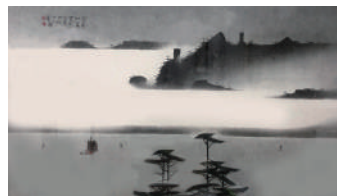
문 의 | KT&G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200년 화맥 소치일가 4대작가

일 시 | 6월 2일(목)-6월 30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그림의 방

이은화 지음 / 아트북스
268p / 1만 7천원

미술관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미술과 관계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전도사'이자 세계 각지의 이색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보석 같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온 '뮤지엄 스토리텔러' 이은화 씨가 명화 60점을 소개한다.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다. 저자는 60점의 명화를 '발상의 방' '행복의 방' '관계의 방' '욕망의 방' '성찰의 방'이라는 5개 테마로 구성했다. 저자를 따라 편안하게 전시실로 들어서는 기분으로 명화를 만날 수 있다. 발상의 방은 전통·규범을 깬 작품, 행복의 방은 평범한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한 그림, 관계의 방은 복잡한 인간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욕망의 방에는 권력·욕심을, 성찰의 방은 역사·기억을 되짚는다. 세기의 명작을 탄생시킨 우연, 명화가 탄생하게 된 과정, 예술가들의 희로애락 등을 풍부하게 담아 미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한다. 모네, 세잔, 칼로, 클림트 등 만인이 사랑하는 회화부터 고키, 라르손, 커셋 등 미술 애호가들이 손꼽는 작품들이 그림의 방에서 기다린다.



예술가의 서재

니나 프루덴버거 지음, 노유연 옮김
한길사 / 280p / 3만 3천원

'리딩 누크(reading nook)'. 독서를 위한 아늑하고 구석진 공간을 말한다. 손만 뻗으면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잡히는 대로 한 권 뽑아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읽고,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도 좋고... 주거·상업시설은 물론 다양한 생활 양식 제품을 디자인하는 로만 알론소는 자신만의 리딩 누크를 사랑한다. 알론소의 서재에는 책과 레코드가 꽂힌 서가 옆에 낮잠용 침대가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니나 프루덴버거가 8개국 15개 도시에 사는 예술가 32명의 서재를 소개하는 책이다. 소개된 예술가들의 직업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편집자, 건축가 등으로 다양하다. 그들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서재이다. 집주인의 관심사나 전문 분야에 따라 서재는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사진에 관한 책이라면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은 서재도 있고, 식물에 대한 책으로 가득한 서재도 있다. 예술가마다 책 분류 방법도 다양하다. 책, 서가, 서재 전문사진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진이 많은 책이다. 32명 예술가의 서재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답다. 서재야말로 '한 사람을 이룬 세계'를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임을 말해준다.



대나무 숲의 임금님 귀

김문홍 지음, 어수현 그림 / 고래책방
128p / 1만 1천원

신라의 임금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진 비밀을 알고 있는 복두장이가 대밭에서 "임금님은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 그 뒤부터 바람이 불면 대밭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경문왕 설화의 내용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로도 나와 있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김문홍 작가의 장편 역사 동화가 나왔다. 경문왕 설화와 김문홍 작가의 인연은 깊다. 2005년 희곡을 먼저 썼다. 그 희곡은 연극으로 만들어졌으며, 2006년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희곡상·연출상을 수상했다. 그 뒤 단편소설 '귀'로 다시 태어나 부산소설가협회의 '좋은 소설'에 발표됐다. 이번에는 장편 역사 동화이다. 극작가, 소설가, 동화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김문홍 작가에게 경문왕 설화의 변신이 가능했다. 성인 독자 대상의 희곡과 소설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말했다면, 어린이를 위한 역사 동화에서는 임금님은 언제나 귀를 크게 열고 백성의 아픔과 소망, 근심 걱정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설정했다. 책 속 주인공 복두장이의 손녀인 가실이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듣고자 하는 임금님의 간절한 마음이 귀를 커지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2022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5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번 로비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처음 열리는 무대로, 변원탄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가족, 지인과 기관 인사,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지휘 이기선)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부산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출연하여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변원탄)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극장 내 LED 디스플레이 및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등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6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이 6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
아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6월 6일(월) 오전 09:55 부산중앙공원 충혼탑_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월 8일(수) 오후 2:00 부산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월 15일(수) 오후 2:00 부산미술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월 16일(목) 오후 6:00 좋은강안병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월 18일(토) 오후 4:00 대대롯데캐슬블루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월 22일(수) 오후 2:00 부산미술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월 25일(토) 오전 11:00 부산시청 대강당 '6·25 기념식'_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월 25일(토) 오후 3:00 감천 슈필라움_부산시립교향악단
6월 29일(수) 오후 2:00 부산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미술관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전시연계 6월 프로그램

(재)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가 매주 목요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지난 4월 체결한 부산시립미술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지난 4월 22일 개막한 기획전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존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를 연계한 워크숍 및 신규 특강 프로그램까지 깊이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9월까지 만날 수 있다.

6월에는 모두 5개의 프로그램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6월 2일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김은주가 진행하는 ‘김은주 작가의 매핑(mapping) 드로잉’이 열린다. 기존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진행되던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수업의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그램으로, 전시감상에 따른 미술관 곳곳을 드로잉으로 매핑해본다. 9일 열리는 소프라노 박지은의

‘뮤지컬 Talk Talk(톡톡)’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뮤지컬 ‘맘마미아’의 ‘Thank you for the music’, ‘지킬앤하이드’의 ‘This is Moment’ 등 대표적인 넘버곡을 배워볼 수 있다. 소설가 함정임의 오랜 여행경험에서 비롯되는 식도락 여행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소설가의 식도락, 소울 푸드(지중해 요리와 예술가)’는 16일, 연습실에서 벗어나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재미있는 몸의 움직임을 배워보는 현대무용가 강건의 ‘춤추는 현대무용’은 23일 열린다. 30일 열리는 ‘Make it! 인생카드’에서는 북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 작가와 함께 판화기법을 응용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전사 방법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인생카드를 만들어볼 수 있다.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연장 기획인력 워크숍 진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6월부터 2022년도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인력 워크숍을 진행한다.

부산 거주자로 공연장 공연기획에 관심을 가진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현장 경험 위주의 강연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공연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 기획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공연장 기획인력 워크숍은 6월부터 8주간 14강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주역 확정

7월 7일~9일

평일 10:30분, 14:00 토요일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예술단이 7월 7일 첫 선을 보이는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출연할 부산지역 청년성악가 8인이 지난 5월 16일 오디션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토크오페라는 공연기획 구상 단계부터 ‘교육’과 ‘오페라’에 대한 화두로 출발, 부산오페라하우스 완공을 앞두고 미래 관객들인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무대를 보여주고, 지역 오페라 무대를 이끌어갈 청년성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주역 오디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당초 로지나와 피가로, 알마비바 백작, 바르톨로 등 주역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작품을 준비해온 응시자의 실력과 열정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로지나와 피가로는 각 3명을 선발, 3인3색의 로지나-피가로와 알마비바, 바르톨로 등 8명의 청년성악가들이 토크오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 3인3색의 개성 넘치는 로지나-피가로에는 소프라노 오예은, 박나래, 전은혜(이상 로지나), 바리톤 이태영, 시영민, 유용준(이상 피가로)이 캐스팅되었고, 알마비바에는 강도호, 바르톨로에는 박순기가 캐스팅되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성악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오예은은 오는 9월 막이 오르는 국립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에도 캐스팅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박나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전은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고향 부산 무대에 선다.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리톤 이태영은 심사위원이 가장 먼저 낙점한 피가로로, 코로나19상황에서도 ‘배비장전’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등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또 한명의 피가로 유용준은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마지막 피가로 시영민은 한스 아이슬러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알마비바로 캐스팅된 테너 강도호는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바르톨로로 선발된 베이스바리톤 박순기는 호주 시드니 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작품 해석, 표현, 에너지가 특히 기대되는 8명은 모두 부산출신으로, 평균연령은 35.3세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무대를 갈망하는 응시자들의 열정이 전해진 뜨거운 오디션이었던 만큼, 참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앞으로 부산 오페라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토크오페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7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린다. 평일은 학교 단체관람으로 진행되고, 7월 9일 오후 3시 공연은 일반 관객들을 위해 공연한다.





정년퇴임 앞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소프라노
최난영 & 최선희



소프라노 최선희

소프라노 최난영

2022년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1972년 전국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최초로 창단된 부산시립합창단은 합창음악 발전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부산시민의 문화적 긍지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런 뜻깊은 2022년, 오랜 기간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며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던 단원 최난영, 최선희 씨가 30여년이 넘는 합창단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들은 요즘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공연이자 그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연습에 마지막 열정을 태우고 있다.

현재 부산시립합창단의 최고참 단원이기도 한 최난영 씨는 지난 1985년 5월에 위촉받아 올해로 입단 39년째를 맞고 있다. 최선희 씨는 그보다 늦은 1991년 1월 입단하여 올해로 32년째이다. 최난영 씨의 경우 대학 3학년이던 1983년 연구단원(현재 비상임단원)으로 첫발을 내딛었으니 부산시립합창단과 맺은 인연으로만 치자면 40년이 훌쩍 넘는다. 최선희 씨는 결혼과 출산 후 비교적 늦은 나이인 서른에 입단했다. 동갑의 나이에 같은 소프라노 파트에서 오랜 기간 함께했던 그들은 호흡이 잘 맞는 합창단 동료이자 좋은 친구이다.

“얼마 전 리허설을 하다 잠시 객석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객석의 빨간 의자가 제 눈 앞으로 쑥 다가오더군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찾아주는 관객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구나. 퇴임을 앞두고 보니 무엇보다 오랜 세월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때 당시도, 지금도 ‘음악이 내 삶의 전부’라는 최선희 씨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합창단, 시민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 위로를 주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후배들도 항상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 그런 무대를 위해 단원 스스로도 많은 노력도 기울였음 하구요.” 오랜 세월을 매일 합창단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단원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최난영 씨.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한 단원들의 노력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단원들의 처우 및 환경개선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선배로서의 바람이다.

그들에게 있어 퇴임을 앞둔 지난 3년간은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당시 이기선 예술감독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와 함께 시도할 새로운 무대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은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카르미나 부라나’로 마지막 인사를 고하게 되었다. 그래도 합창단으로서는 의미있는 해, 의미있는 무대를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어 그나마 아쉬움이 덜하다.

7월부터는 이제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 합창단과 함께 하며 합창단 서포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난영, 최선희 씨.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을 지역문화예술계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새로운 길로 나서는 그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한다.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人間 世界

×
×
×

문외객

×
×
×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희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희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별지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별지4] 창작 희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엄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O PROGRAM

2022.6-9월
June-Sept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3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8.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책과 음악, 대화로 가득한 첼리스트의 책방으로 초대합니다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문화 | 대극장 2022.9.8.(목)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9.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9.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연극·뮤지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7.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만 11세 이상 관람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7.30.(토)-31.(일)
토 6: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만 14세 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9.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발-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뽀빠이를 찾아라>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콘서트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선택하는 가장 트렌디한 콘서트

**<SELECT SHOP ;
셀렉콘 - 십센치 X 소수빈> - 부산**

시민 | 대극장 2022.6.11.(토). 6:00pm
V 121,000원 R 99,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가족·어린이

팔죽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5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기획연주회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11. 17.(목) 9:00pm
전석 5,000원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드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남량특집 '미스터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종욱 | 모듬북 허정욱

합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종욱 | 연출안무 이정윤

작곡 이경은 |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3.(토)

평일 8:00pm, 주말 4:00pm, 8:00pm

R 30,000원 S 20,000원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제68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폴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14: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염지선(단원)



제73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당선작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연출 김자용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0. 2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7. 8.(목) 7:30pm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Ensemble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 (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 예매 서비스 제공(일부공연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단독 : 전용차, 전용홀
단체 : 전용홀, 전용홀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중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단체 지정된 객석 수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 (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5월 21(토) 오후 5: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일(금)-14일(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7월 8일(금)-9일(토) 금 오후 7:30 **종료**
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뮤지컬 ‘팬레터’

7월 30일(토)-31일(일) 토 오후 6:0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국립창극단 <귀토>

8월 12(금)-13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8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뚜를 찾아라

8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책과 음악, 대화로 가득한 첼리스트의 책방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9월 8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9월 23일(금)-24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9월 29일(목)-10월 1일(토)
목-금 오전 10:0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문화를 파워



하게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2년 **3월 1일(화) ~ 6월 30일(목)**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권)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QR코드로
간편가입!



이 름

아 이 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 메 일

주 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오디션을 거친 최정상급 성악가 8인이 선사하는
유쾌한 드라마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G. Rossini



지휘 이명근



연출·해설 이의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이명근
연출 및 해설 이의주
무대구성 이의주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무대감독 박재현
음악코치 도민영
영상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은빈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로지나 오예은, 박나래, 전은혜
피가로 이태영, 유용준, 시영민
알마비바 강도호
바르톨로 박순기
무용 현지연

무대제작 남기혁
협력연출 김채령

2022. 7. 7(목) ~ 7. 9(토)

평일 오전 10:30, 오후 2:00 토요일 오후 3:00

※ 평일은 단체관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김중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지휘 박승희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예술감독)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 연정국악단 합동교류음악회

프로그램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 (성화정)
거문고 협주곡 '섬화(閃火)' (최지운)
신내림 (박범훈)
서곡 '달빛향해' (원일)
마림바 협주곡 '바람의 노래' (홍정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금강 <역동의 강>' (이정호)

거문고 전현진

마림바 김지향

2022. 6. 15 WED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588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VOYAGE - THE MAURICE RAVEL CYCLE VII

여정

지휘 김광현
피아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노재봉 / 모리 (세계 초연, 부산시향 위촉)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라벨 /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한국 초연)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문의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춤추는 별을 그린 화가, 그가 들려주는 달과 별의 하모니

Musical

그림에 인생을 건 한 남자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2022. 7. 8.(금) 19시 30분 7. 9.(토) 14시, 18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Henri Matisse

22. 7. 9. — 10. 30.

HENRI MATISSE
Life and Joy

09 JUL-
30 OCT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2022년 7월 9일 -
10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Sound]
of
MATISSE

[Line]
of
MATISSE

[Color]
of
MATISSE



Life and Joy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다운 장면과 공간들을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회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2년 5월 30일(월)~7월 15일(금)



포토존 주제 부산문화회관 야외



참 여 방 법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사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야외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8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유 의 사 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 당첨 상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을 찾은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웃음 속에서
2022년 새봄을 느껴봅니다.

제1회 사진맛집 BSCC 이벤트 당첨자

우수상



@ma.til.da__

우수상



@jju_storyroom

우수상



@smyjx_z

우수상 @ma.til.da__ @jju_storyroom @smyjx_z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당첨자 없음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6.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Food & Coffee

- | | |
|-------------|------------------|
| 1 612-9566 | 11 070-755-2188 |
| 2 624-9776 | 12 611-3973 |
| 3 626-7111 | 13 908-1111 |
| 4 611-4241 | 14 625-9402 |
| 5 626-4448 | 15 626-2292 |
| 6 622-7412 | 16 010-3996-6498 |
| 7 611-3589 | 17 623-0772 |
| 8 628-8009 | 18 628-3832 |
| 9 621-7040 | 19 714-3559 |
| 10 621-5788 | |

Music & Art / etc.

- | |
|----------------|
| A 868-3311 |
| B 868-3311 |
| C 625-7275 |
| D 628-2592 |
| E 622-1456 |
| G 621-6669 |
| H 626-7900 |
| I 080-337-3370 |
| J 622-9722 |
| L 625-8704 |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우 표

받는 사람

이 름

주 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2022

6

JUNE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WORLD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
피아니스트 홍민수

COMPETITION

듀오 리사이틀

WINNER



SERIES III

|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1544-1555)

2022. 7. 22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